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문 옥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어머니와 만 2세 영아 간의
생활동화 읽기에 대한 질적 탐구

2014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전 경 애

어머니와 만 2세 영아 간의
생활동화 읽기에 대한 질적 탐구

이 문 옥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전 경 애

인 준 서

전경애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생활동화 읽기에서 나타난 어머니와 영아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생활동화를 읽으면서 나타나는 영아의 반응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동화 읽기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상호작용은 어떠한가?

둘째, 생활동화를 읽으면서 나타난 영아의 반응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영아 4명과 그들의 어머니 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기간은 2013년 5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이며, 연구자는 이 기간 동안 각 가정을 12회씩 방문하여 14주 동안 12회의 어머니와 영아의 생활동화 읽는 과정을 참여관찰 하였다. 자료 수집은 참여관찰과 심층면담, 어머니의 저널을 통해 이루어졌다.

생활동화 읽기에서 나타난 어머니와 만 2세 영아 간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참여관찰을 하였으며, 참여관찰 시 어머니와 영아의 생활동화 읽기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이를 전사하였다. 영아의 반응은 영아의 일상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영아의 행동과 태도를 세심하게 파악할 수 있는 어머니가 작성한 저널과 연구자와의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수집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선행연구를 탐독하며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동화 읽기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탐색한 결과 어머니는 기본생활습관 중심의 이야기 나누기를 나누면서 영아의 올바른 기본생활습관을 격려하고, 구체적인 기본생활습관 방법의 습득을 도우며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약속을 하였고, 일상생활에서는 기본생활습관 지도 수단으로서 생활동화를 활용하며 상호작용하였다. 그리고 생활동화를 읽고 영아와의 경험을 나누는 열린 대화를 통해 교감, 소통 및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영아와 함께 책 읽기 경험을 통해 영아들이 책 읽기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상호작용을 하였다.

둘째, 생활동화를 읽으면서 영아는 동일시를 통해 즐거움 찾으며 책 읽기에 대한 흥미를 보였다. 생활동화를 읽은 후 일상생활에서는 기본생활습관을 실천하고, 책 속의 주인공을 모방하거나 책 속 상황을 놀이로 재 표상하기도 하면서 책 읽기 습관 및 태도를 형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위의 연구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와 영아는 생활동화를 통해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하고, 형성하는데 도움을 받으므로 생활동화는 영아의 생활경험을 반영하여 주제와 목적에 따라 내용이 교육적으로 충실해야한다.

둘째, 영아가 즐거운 책읽기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영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에 적절한 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어머니는 영아의 발달 수준과 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파악하여 이에 적절한 주제 및 내용의 그림책을 선정해야한다.

셋째, 그림책은 영아 혼자 읽기보다는 어머니와 영아가 함께 상호작용하며 읽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책읽기 경험은 자연스럽게 일상화되어야 영아의 책 읽기 습관 및 태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7
3. 용어의 정의	8
4. 연구 동기	9
II. 이론적 배경	11
1. 영아기의 발달적 특징	11
2. 영아와 그림책	13
1) 그림책의 정의와 장르	14
2) 영아에게 적합한 그림책	15
3) 생활동화	17
3. 어머니와 영아의 그림책읽기	20
1) 어머니와 영아의 그림책읽기의 중요성	20
2) 어머니와 영아의 그림책읽기 상호작용 선행연구	21
III. 연구방법	28
1. 연구 참여자	28
2. 연구절차	32
3. 자료수집	35

4. 자료분석	37
IV. 연구결과 및 해석	41
1. 생활동화 읽기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상호작용	41
1) 기본생활습관 중심의 이야기 나누기	41
2) 생활동화를 통한 교감, 소통 및 공감대 형성하기	54
3) 자녀를 위한 독서 지도의 기초 태도 형성하기	59
2. 생활동화를 읽으면서 나타난 영아의 반응	62
1) 동일시를 통해 즐거움 찾기	63
2) 기본생활습관 실천하기	65
3) 책의 내용을 놀이로 재 표상하기	68
4) 책 읽기 습관 및 태도 형성하기	71
V. 논의 및 결론	78
1. 요약 및 논의	78
2. 결론 및 제언	84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연구 참여자 기본 정보	28
<표 2> 기본생활습관과 관련된 그림책 목록	34
<표 3> 수집된 자료의 종류	37
<표 4> 연구자의 자료 분석	3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책 읽기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책 속의 다양한 삶과 이야기는 한 인간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성장하고 도전하게 만든다. 이에 부모들은 일찍부터 자녀들에게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해 주고자 많은 책을 구입하고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대한출판협회의 2012년 출판통계를 보면 분야별 발행부수 현황에서 아동분야가 전체의 30.5 %로 가장 많은 부수를 기록하였는데, 위의 현실을 반영하는 출판업계의 현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주 양육자인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기 시작하는 시기는 대체로 0~3개월 이전이 많으며, 그림책을 접하는 연령이 점차 더 낮아지고 있다(이영경, 2000). 이에 따라 다양한 주제와 장르, 형태의 0~3세 영아를 위한 그림책이 시중에 많이 보급되고 있다. 그림책은 영아가 인생에서 처음 접하는 책이다. 따라서 성인은 영아에게 의미 있는 책이 될 수 있도록 영아의 발달특성과 책에 대한 흥미를 고려하여 적절한 그림책을 제공해야 한다(김현희, 박상희, 2008).

영아기는 신체,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등 모든 발달이 급속도로 일어나는 시기이며, 이후 성장의 기초가 되는 결정적 시기이다. 특히, 영아가 만 2세경이 되면서 겪는 가장 커다란 인지적 변화는 감각운동 단계에서 전조작 단계로 이행되는 것이며, 이러한 이행의 가장 중심적인 활동은 정신적 표상능력이다(이상금, 장영희, 2001). 즉, 눈앞에 안 보이는 사물이나 상태, 상황 등을 내재적으로 표상할 수 있고, 감각적인 것을 넘어 언어와 상징을 사용하여 사고하고 말하고 상상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영아기의 책읽기

경험은 인지적, 정서적 발달뿐만 아니라 이후 독서에 대한 태도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이송은, 2006).

그림책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주고, 사고의 발달을 이끈다. 그리고 그림책을 경험하며 예술적인 심미감, 즐거움과 기쁨, 정서적 안정을 느낄 수 있다(최은주, 2002). 그림책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세계를 접하면서 자신의 실제 경험과 연결시켜 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아 자신과 타인 및 주변 환경에 대해 더욱 잘 배우게 된다(최혜경, 2008). 이처럼 그림책은 교육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훌륭한 교육적 매체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만 2세 영아기의 책읽기 경험은 중요한데, 영아는 주체적으로 그림책 '읽기'를 할 수 없으므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이야기를 파악하게 된다(최예린, 2010). 즉 영아는 글을 읽을 수 없으므로 어머니가 읽어서 들려주는 소리를 들으며 그림을 보고 내용을 이해하며, 그림책과 의사소통한다. 그림책을 읽어준다는 것은 성장의 씨앗을 뿌리고 어린이의 성장을 돕는 일이다(마쓰이 다다시, 1996). 영아는 어머니가 읽어 주는 이야기 속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이해하고 자신감과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되며,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고,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다(최은주, 2002). 그림책을 읽어주는 동안 어머니와 영아의 관계는 통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로 진전되며, 그림책을 읽는 동안 밀접하고 특별한 친밀감을 형성하게 된다(이민경, 2003). 어머니와 영아가 함께 그림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한다.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질은 그림책 읽기 활동에서 책 이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머니는 현재 영아의 발달 수준에 보조를 맞추기도 하고, 때로는 영아에게 다소 어려운 대상에 대해 설명과 질문을 하며, 영아의 반

응에 따라 적절한 피드백을 주기 때문이다(최예린, 2010). 그러므로 영아가 그림책을 이해하고, 즐거움을 느끼고,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그림책에 대한 관심,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의 어머니-영아 간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어머니와 영아 간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책읽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그 차이에 따른 결과를 보고하거나(고진숙, 2004; 김명숙, 2008; 김재순, 2003; 최은주, 2002),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에서의 어머니나 영아의 특정 변인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노정임, 2012; 육길나, 2008; 정명숙, 2012)을 알아 본 양적 연구가 있다. 어머니와 영아 간의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을 참여관찰을 통해 분석(고우리, 2013; 최예린, 2010)하거나 영아가 그림책과 친숙해지는 과정을 살펴본 연구(정선명, 2012)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어머니- 영아 간의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의 특징과 의미 등을 알려주며 어머니와 영아 간의 책 읽기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어머니와 영아 간의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에서 그림책이 갖는 특성에 의해 상호작용이 달라질 수 있다(김민화, 2005)는 점이 부각되면서 그림책, 영아, 어머니 삼자 간의 상호작용을 고찰한 연구도 있다. 김민화(2005)는 같은 주제의 다양한 형식으로 구분되는 그림책 읽기에서 나타난 그림책, 영아, 어머니의 삼자간 의사소통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그림책의 글과 그림이 가지는 형식이 어머니와 영아가 그 형식에 적합하게 의사소통 방식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통해 그림책의 종류나 장르 등에 따라 어머니와 영아 간의 의사소통의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어머니와 영아 간의 책 읽기 상호작용의 내용이나 특징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차이를 알수 있다면 어머니들이 영아와 책 읽기를 할 때 교육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림책의 한 가지 장르에 대한 영아의 반응(강화자, 2008; 김선희, 전연우, 조희숙, 2011)을 살펴보거나 그림책 장르에 따른 반응을 연령별로 비교한 연구(신현숙, 2000, 홍선희, 2000), 그림책 장르에 따른 어머니와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전략 차이(문지영, 2006; 이은수, 2010)를 알아 본 연구 등 영·유아의 반응만을 탐색해 보거나, 어머니와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다라도 그림책의 장르가 정보그림책이나 이야기 그림책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그림책의 다양한 장르에 따FMS 영아의 반응이나 어머니와 영아 간의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걸음마기에서 유아기로 이행하는 시기인 2세 무렵부터 영아는 신체 및 운동 능력 발달이 활발히 일어나 서고, 걷고, 달리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의 대근육 발달이 이전보다 융통적이고 안정적으로 일어나게 되며, 소근육의 정교화로 기본적인 자조능력을 획득해 나간다. 자조능력이란 혼자 먹으려 하고 혼자 입으려 하고 스스로 먹고 자고 씻고 하는 일상의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명순, 곽승주, 전영희, 2010)으로, 영아들은 이러한 행동을 수없이 실행, 도전해보며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자율성을 형성해간다. 이 때 영아는 대·소근육, 자조능력 등의 발달이 미성숙하여 스스로 손가락을 사용하여 음식을 먹을 때 흘리거나, 옷을 입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대·소변 실수를 하는 등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 이러한 과정은 영아에게 있어 중요한 학습 과정이며, 자신감과 성취감을 갖게 하므로(장영희, 2000) 영아가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자조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였던 영아가 자기 스스로 움직이고 밥 먹고 옷을 입는 자조능력을 획득하는 것은 독립적인 하나의 개체로서 만드

시 이루어야 하는 발달과업의 하나(이명순, 곽승주, 전영희, 2010)이다. 이러한 발달 과업을 원만하게 수행하였을 때 다음 단계로의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 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건전한 성격을 형성해나가고, 인간관계를 배우며 사회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영역이 바로 기본생활습관이다. 기본생활습관은 한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을 익혀 습관화하는 것으로 올바른 기본생활습관은 영아의 인성에 바탕이 되고 성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이세림, 2011). 영아기에 잘못 형성된 습관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에서 볼 수 있듯이 쉽게 고치기 어려우므로(정인선, 2008), 자조능력과 자율성이 발달하는 2세 영아기에 올바른 기본생활습관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

가정은 영아가 태어나서 맺게 되는 인간관계의 첫 대상이며, 영아의 생활습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곳이다(정원식, 1984). 부모는 영아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존재로서 사회적으로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가치관, 규범, 사회적 역할 및 행동양식 등을 습득하게 하며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양육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영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중 가정환경은 인간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 일상의 대부분을 가정에서 보내는 영아에게 매우 중요하다(김현정, 2009). 특히 어머니는 영아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적 환경으로 출생 직후부터 영아는 어머니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영아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 발달해 나간다(이지은, 2008).

가정에서 어머니가 만 2세 영아의 혼자서 밥 먹기, 옷 입기, 배변하기 등의 독립적인 행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며 올바른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편

식이나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 등과 같은 부적절한 생활 태도가 나타나 어머니와 영아 모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 때 놀이나 음악을 활용하거나 그림책 읽어주기, 각 각의 상황에서 행동수정 적용하기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영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도울 수 있다. 그 중 영아들이 즐겁게 공감하며 올바르게 않은 생활습관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적 매체로 생활동화를 들 수 있다. 영아는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 내용을 담은 그림책을 좋아하며, 생활동화 속의 자신의 생활과 비슷한 여러 사건들도 이 시기 영아가 즐기는 내용이기(이상금, 장영희, 2001) 때문이다. 실제로도 영아를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그림책을 가장 많이 구입(김지윤, 2002)하고 있었다.

생활동화는 영아의 일상생활과 비슷한 경험, 사건 등을 소재로 영아의 정서, 발달과업, 놀이 등 다양한 주제로 영아의 삶을 이야기하며 영아들이 갖는 경험을 다루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이다. 생활동화 속의 주인공은 영아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 혹은 의인화된 동물 등이며, 지금, 여기라는 현재의 시공간적인 배경에서 겪는 실제적인 문제나 갈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문학적인 요소로서의 특징으로 인해 생활동화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이므로 영아들을 쉽게 동기 유발시키고 영아들의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유용하다(이경우, 장영희, 이차숙, 노영희, 이현자, 1997). 기본생활습관과 관련된 생활동화를 함께 읽으면서 영아는 그림책 속의 등장인물과 상황을 통해 자신의 자조능력에 대한 유능감, 성취감을 느끼고 보다 즐겁게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생활동화의 위와 같은 교육적인 의의를 살펴볼 때 영아는 생활동화를 읽는 것만으로도 기본생활습관의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도움을 어떻게 받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영아의 생활동

화 읽기에 대한 상호작용을 탐색해보고, 이에 따른 영아의 행동이나 태도 등의 반응을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생활동화와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의 기관에서 그림책을 활용한 다양한 교수방법이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양적연구(고명수, 2005; 이미영, 2007; 이세림, 2011; 장현주, 2000)가 대부분이며 그 연구 대상도 만3~5세 유아들이다. 즉 동화를 통한 통합교육활동을 한 후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본 연구들이므로 생활동화 자체가 영아에게 어떻게 작용하여 영아의 기본생활습관의 형성을 돕는지 살펴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 어머니와 영아 간의 생활동화 읽기와 영아의 반응에 대하여 탐색해 본다면 생활동화라는 장르적 특성을 반영한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의 내용과 의미, 영아가 생활동화를 통해 도움을 받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활동화 읽기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와 영아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살펴봄으로서 생활동화를 읽을 때 어머니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 생활동화를 읽으면서 영아의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경험이 어떻게 표출되고, 그 반응은 어떠한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생활동화 읽기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상호작용은 어떠한가?
- 2) 생활동화를 읽으면서 나타난 영아의 반응은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1) 생활동화

본 연구에서의 생활동화란 영아의 기본생활습관(이닦기, 얼굴과 손 씻기 및 목욕하기, 스스로 옷 입고 벗기, 스스로 먹기, 배설하기, 잠자기 등)에 대한 흥미와 올바른 방법 제시 및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영아의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반영한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을 말한다.

2)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은 일상생활, 놀이 과정, 갈등상황, 과제수행 등 다양한 상황 속에서 빈번히 일어난다(김재순, 2003). 그 중 책 읽기 과정에서 어머니와 영아가 대화를 통해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며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의 생활동화 읽기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은 영아에게 생활동화의 주제와 관련되는 영아의 경험을 말하게 함으로써 공통되는 경험을 만들고, 어머니가 이야기의 주제를 계속 유지해 주면서 새로운 정보를 첨가시켜 주며, 영아의 능력을 파악한 후 올바른 학습을 안내함으로서 영아가 조금 더 발달된 수준으로 나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머니 주도의 대화를 의미한다.

4. 연구 동기

유치원 교사로서 4년 동안 재직하면서 가장 즐겁고 신나는 기억은 유아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그림책 속에 담긴 이야기, 감동, 웃음 등을 공유하던 것이다. 그림책을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유치원에서 근무하면서 그림책의 가치, 그림책의 유용성, 그림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 등을 동료 교사들과 함께 연구하고 유아들과 직접 활동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교수매체로서 그림책의 교육적인 가치를 몸소 느꼈고, 그림책만이 주는 재미와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다른 유치원으로 이직한 후에도 유아들에게 좋은 그림책을 읽어주기 위해 그림책을 가까이 하고, 동화구연을 배워 유아들에게 재미있게 들려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그림책에 대한 나의 관심과 사랑은 유치원 퇴사 후 육아와 대학원 공부를 병행하면서도 지속되었다.

우리 아이에게도 좋은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고, 아이가 그림책을 좋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이가 읽기 시작할 무렵부터 꾸준히 그림책을 보여주고 읽어주었다. 그림책의 작은 그림을 가리키며 미소 짓는 아이의 표정과 내가 들려주는 목소리의 구연 방식이나 목소리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반응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영아도 즐겁게 책읽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유아와는 다른 어머니와 영아의 책 읽기 상호작용과 환경적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어머니와 영아 간의 책읽기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한 편씩 찾아 읽어보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으로 나의 대학원 졸업 연구 주제도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영아의 그림책 읽기와 관련된 것으로 좁혀져 갔다. 유치원 교사 생활을 해 보았기에 만 3~5세 유아들의 그림책을 읽을 때의 흥미와 반응, 행동양상 등은 머릿속에 그려지나 영아들은 그림책을 읽을 때 어떤 모습일지, 어떤 방법으로 읽

어 주어야 효과적일지는 통 감이 잡히질 않았다. 그래서 그림책 읽기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와 영아 간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질적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도 교수님, 대학원 선생님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연구주제를 선정하였다.

영아의 발달에 대해 공부를 해보니 특히 만 2세 영아기는 자조능력과 언어능력의 발달이 눈에 띄게 성장하는 시기였다. 이와 같은 발달 특징을 고려해볼 때 만 2세 영아에게 도움이 되는 그림책 장르는 생활동화라 여겨졌고, 선행연구를 살펴보니 생활동화 읽기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와 영아간의 상호작용의 특성을 분석해 본 연구는 없었다. 이에 생활동화 읽기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생활동화를 읽으면서 영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며 기본생활습관이나 책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색해 보기로 하였다. 나의 이 연구가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들, 그림책을 통해 아름답게 성장 할 영아들에게 교육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Ⅱ. 이론적 배경

1. 영아기의 발달적 특징

발달이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그리고 인간의 각 특성에 걸쳐 일어나는 양적, 질적 변화를 뜻한다(박성연, 도연심, 2001). 전 생애의 발달 중 영아기는 신체,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등 모든 발달이 급속도로 일어나는 시기이며, 특히 걸음마기에서 유아기로 이행하는 시기인 만 2세 영아들은 이전 시기에 비하여 정교한 질적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를 발달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운동 발달 면에서 신체적 안정성과 이동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로 걷기, 뛰기, 뛰어오르기, 미끄러지기 등의 운동 기능이 급속도로 발달한다(이숙재, 이봉선, 1999). 조작적 능력이 발달하고 눈과 손의 협응도 정확해져서 사물의 조작 능력이 정교해지고, 자조능력을 획득해 간다. 자조능력이란 혼자 먹으려 하고 혼자 입으려 하고 스스로 먹고 자고 씻고 하는 일상의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명순, 광승주, 전영희, 2010)으로 만 2세 영아기에 갖추어야 할 중요한 발달과업이다. 만 2세 초기에는 자조기술이 향상되어 최소한의 도움만 받고서 치아를 닦을 수 있고, 손가락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만 2세 후기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혼자서 먹기, 옷 입기, 씻기, 이 닦기, 잠자기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한 성취감을 갖게 된다(양옥승, 조유나, 나은숙, 김호인, 손복영, 2011).

둘째, 언어발달 면에서 만 2세 전후의 영아는 세 단어 이상의 문장을 사용하면서부터 접속사, 문법적 형태소를 사용하는 등 문법의 발달이 나타나 성인

의 말과 비슷해진다(서정숙, 남규, 2010). 문법의 발달과 함께 어휘 습득이 가속화되어 자신이 갖는 개념을 언어로 능동적으로 표출(정선명, 2012)하고 언어가 정교화 된다. 비고츠키에 따르면 영아가 만 2~3세가 되어 언어와 사고가 겹쳐지게 되면서 영아의 언어와 사고는 이전과 달라지기 시작하여 사고는 언어의 기초를 마련하고, 언어는 사고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 즉 언어는 의사소통 이외에 자신의 사고의 조절에 쓰여 영아는 말을 하면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이명조, 2005).

만 2세경이 되면 친숙한 책의 앞장이 어디인지 인식하며 책의 위와 아래를 구분할 수 있는 행동이 나타난다(양옥승, 조유나, 나은숙, 김호인, 손복영, 2011). Sulzby(1990)는 만 2세시기에 책의 글자를 경험하게 됨에 따라 글자의 시각적 특성을 파악하기 시작하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방향성, 말과 글자의 대응, 그림과 글자의 차이를 파악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만 2세 영아는 언어의 정교화, 언어와 사고의 발달, 문해 능력의 발달 등으로 이전 시기에 비하여 그림책을 책으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읽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

셋째, 인지발달 면에서 만 2세 영아기는 감각운동단계에서 전조작단계로 이행하는 시기로, 이러한 이행의 가장 중심적인 활동은 정신적 표상능력이다(이상금, 장영희, 2001). 즉 눈앞에 없는 사물이나 상태를 내재적으로 표상하는 심상을 형성할 수 있게 되어 감각적인 것을 넘어 언어와 상징을 사용하여 사고하고 말하고 상상할 수 있게 된다.

Piaget(1968)에 의하면 전조작기 시기인 만 2세부터는 회상능력이 나타나는데, 회상하기 위해선 심상이나 언어, 즉 어떤 형태의 상징기능 또는 조작적이거나 전조작적인 표상능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 가능해진다고 보았다(양옥승, 조유나, 나은숙, 김호인, 손복영, 2011 재인용).

넷째, 사회·정서 발달 면에서 만 2세 전후의 영아기는 Erikson의 사회 심리적 발달 단계 중 자율성 대 수치심 및 회의감의 단계에 속하며, 배변 훈련 및 기본적 자조기술을 익히는 시기로 혼자서 한 일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서정숙, 남규, 2005). 이러한 자율성과 독립성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내면적으로는 독립과 의존의 딜레마를 겪는데(곽승주, 2003), 이 때 영아를 적절히 도와주고 격려해주면 자율성이 발달하고 영아의 미숙함을 우려하여 과잉 통제하거나 비난을 하면 수치심과 회의감을 갖게 된다(이송은, 2006).

이처럼 만 2세 영아는 모든 발달 영역에서 이전 시기와는 다른 질적 변화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영아의 발달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영아가 만 2세 시기에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성장 과정에서 영아가 무엇을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여 영아의 발달에 적합한 경험과 상호작용을 그림책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2. 영아와 그림책

독서 지도의 지침에 ‘적절한 책을,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시기에’라는 말이 있다(이상금, 1998). 즉, 아무리 문학적 가치가 높고, 그림이 아름다운 그림책일지라도 영아의 발달적 수준이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그림책은 영아에게 어떤 흥미도 끌지 못하고 무의미한 사물에 불과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영아의 발달특징에 따르면 만 2세 영아기는 인지적으로 정신적 표상능력이 발달하고, 문법과 어휘발달이 가속화하며, 배변훈련 및 자조기술을 익히면서 자율성을 형성해가는 시기이다. 이와 같은 발달적 특징을 갖는 만 2세 영아에게 적합한 그림책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1) 그림책의 정의와 장르

그림책에는 글과 그림이라는 두 가지 의사소통 수단이 있으며, 글과 그림이 각각의 역할을 함으로써 통합된 하나의 내용을 완성시키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마미에, 2010). 학자들마다 그림책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데 Jalongo(1988)는 그림책은 내용이 있고 그림이 단순한 ‘그림 이야기책’으로 정의하였고, Cullinan과 Galda(1994)는 텍스트와 일러스트레이션의 고유한 결합을 통해 이야기를 하거나 개념을 나타낸 것이 그림책이라고 하였다. Egoff는 그림책을 “아동과 성인의 두 개 층의 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글과 그림이라는 두 개의 예술형태, 즉 문학적 형태와 예술적 형태를 동시에 전개시켜 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장 복잡한 문학 장르”라고 말하였다(Stwig, 1995; 서정숙, 남규, 2010 재인용). 또한 Nikoljava(2001)는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라는 두 개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어내는 독특한 예술형식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해보면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라는 두 가지 의사소통 방식이 예술적인 조화를 이루어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하겠다.

한편 20세기 초에는 그림책이 장르라기보다 글과 그림이 함께 하는 내용 구성의 형태적 성격이 강하였으나 20세기 후반부터는 영상과 감성을 중시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글과 그림의 유기적 관계로부터 새로운 의미가 발현되므로 고유한 문학 장르로 보는 관점이 대두되고 있다(이송은, 이선영, 2005). 고유한 문학 장르로서 그림책을 작품형성의 원리나 주제, 인물, 구성 등의 문학적 요소에 의해 유형이나 종류를 구분해보면 유아문학의 장르로 나눌 수도 있다. 이에 학자들도 그림책을 문학 장르에 포함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장르의 하위 장르로 보고 장르 외의 구분을 하기도 한다. Cullinan과 Galda(2002)는 그림책, 시와 운문, 전승문학, 판타지, 과학 소설, 사실주의 소

설, 역사 소설, 전기, 논픽션으로 구분한다. Huck 등(1997)은 그림책, 전승문학, 현대 환상동화, 현대 사실동화, 역사동화와 전기, 그리고 지식을 전달하는 책으로 나누고 있다(강은진, 1996 재인용). 김현희와 박상희(1999)는 크게 전승문학과 창작문학, 그림책으로 구분하고, 전승문학을 다시 민담, 신화 및 전설, 우화, 서사시로 나누고, 창작문학을 환상문학(환상동화, 공상 과학 동화), 사실문학(생활동화, 역사동화, 전기, 정보 책)으로 나누었다. 이와는 달리 서정숙과 남규(2010)는 전래동화, 전래동요, 환상동화, 사실동화, 동시 등의 유아문학 장르 구분을 그림책에 대입하여 옛이야기 그림책, 전래동요 그림책, 환상 그림책, 사실 그림책, 동시 그림책, 글 없는 그림책으로 구분하였다. 즉 그림책은 유아문학의 고유한 하위 장르인 동시에 유아문학의 다른 모든 장르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그림책은 장르 간의 통합이나 내용의 구성, 매체의 다양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장르적으로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책에 대한 장르적 접근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그림책의 장르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선행되었을 때 성인은 영아에게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문학 경험을 배려해 줄 수 있고, 영아는 폭넓은 문학의 세계를 인식하고 보다 의미 있는 문학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영아에게 적합한 그림책

영아는 그림책을 통해 즐겁고 재미있는 발견을 하게 되고, 그림책 속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새롭게 만나기도 한다(이송은, 2006). 그림책은 영아에게 기쁨과 즐거움, 감동을 주고 글과 그림의 조화 속에서 풍부한 감성을 느낄 수 있으며 예술적인 잠재력을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한다(최은주,

2002). 이상금과 장영희(2001)는 그림책은 첫째, 영아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정서를 풍부하게 해 줄 뿐 아니라 사고의 발달을 가져오며, 둘째, 영아의 간접경험의 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며, 셋째, 영아 자신의 주변 세계와 이웃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며, 넷째, 자연스럽게 다양한 언어적 능력들을 습득하게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림책과의 만남을 통한 좋은 독서 생활은 바람직한 독서 습관을 기초로 하여 발전되고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다고 하였다.

영아가 그림책을 통해 갖는 위와 같은 긍정적인 경험은 영아의 흥미와 발달에 적합한 그림책이어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영아의 흥미와 발달에 적합한 좋은 그림책을 선정하여 영아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아에게 적합한 그림책을 선정할 때 Schickedanz(1986)는 가장 먼저 영아가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영아기의 책 읽기 상호작용 방법은 영아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법, 과거에 책을 가지고 놀던 경험과 책읽기 경험, 책의 종류, 운동과 언어기술영역의 발달 정도 등에 따라 다르므로 바람직한 읽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아가 어떤 행동 단계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Schickedanz(1986)는 연령별 발달정도에 따라 영아들이 좋아하는 책을 밝혔는데, 그 중 만 2세 전후의 영아는 읽는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며, 세밀하고 밝은 색의 그림이 있는 그림책을 좋아하고, 책은 평면보다 입체적으로 꾸며진 것, 움직이는 창문이나 문 뒤에 숨겨진 그림 찾기 같은 책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고진숙(2004)도 영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그림책을 선정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만 2세 영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그림책은 생활 속의 사실적 이야기를 담은 친근한 내용으로 단순하고 반복적 운율이 있으며, 경험을 통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이 등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Jalongo(1998)는 36개월 미만 영아를 위한 그림책 선정에 있어 첫째, 이 시기 영아들에게 적절한 부모의 사랑과 자율성과 같은 주제와 소재를 담고 있는지 살펴야 하며, 둘째, 언어가 효과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게 쓰여져 있는지, 쓰여진 글이 간결하고 음악적이며 창의적인지를 살피고, 셋째, 직접적이며 명확하고 단순한 플롯이어야 하며, 넷째, 빠르고 긍정적이어서 만족스러운 결말 인가를 살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김정원, 남규, 서정숙(2011)은 영아에게 적합한 그림책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를 중심으로 단순하고 정확한 개념을 줄 수 있으며, 이야기 전개에서 예측이 가능하며, 등장인물은 영아들에게 친숙한 대상, 살아 있고 생동감 있는 인물이 좋다고 하였다.

앞서 제시한 만 2세 영아의 발달 특성과 그림책의 정의 및 장르와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만 2세 영아에게 적합한 그림책은 첫째, 자조기술과 관련된 일상생활을 소재로 영아의 경험을 사실적으로 이야기하여 영아의 자조기술 습득과 자율성의 발달을 도모하고, 둘째, 영아에게 친숙한 대상, 생동감 있는 주인공이 등장하며, 셋째, 단순한 이야기구조와 긍정적인 결말이 있으며, 넷째, 재미있는 어휘와 반복적인 운율이 있어 영아의 언어발달을 돕고, 마지막으로 글과 그림이 조화를 이루어 심미감과 예술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겠다.

3) 생활동화

영아의 발달적 특징을 고려할 때 다양한 그림책의 장르 중 만 2세 영아에게는 ‘생활동화’가 적절한 장르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생활동화는 영아의 생활경험을 소재로 현실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현실의 논리에 맞게 이

야기를 진행시켜 나가는 동화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범위 안에서 설정하므로 사실동화라고도 한다(이송은, 이선영, 2005). Cullinan과 Galda(2002)는 생활동화가 현실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재를 다룬다는 점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취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하는 동화라고 하였다. 즉, 잘 쓰여진 생활동화는 읽는 동안 ‘이건 내 이야기야.’, ‘나도 이렇게 느꼈어.’라는 동일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이송은, 이선영, 2005).

그림책은 각 장르마다 문학요소들이 연합되는 종류와 그 정도에 따라 다양(Lukens, 1995)한데, 생활동화도 등장인물, 배경, 구성 등의 문학적 요소로서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생활동화의 특징을 살펴보면(이춘희, 2005) 첫째, 등장인물은 영아의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로, 때로는 환상적인 요소가 가미된 의인화된 동물이 등장한다. 둘째, 배경은 실제의 상황이거나 실제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시공간이다. 즉 영아들이 살고 있는 시간과 장소를 담고 있다(강은진, 1996). 셋째, 생활동화의 구성은 실제적인 문제, 목적, 갈등으로 이루어지고(고문숙, 임영심, 1999), 주인공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문제들을 처리하고 해결해 나간다(강은진, 1996). 이에 영아가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흥미를 갖고 있을 수 있다. 결말은 전래동화처럼 항상 행복한 결말은 아니지만 현실을 반영하거나 유머를 지니기도 한다. 넷째, 주제는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며, 영아의 생활태도 및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루었기 때문에 이후 영아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와 같이 영아들은 생활동화를 통해 다른 영아들도 자신처럼 기쁨, 슬픔, 두려움 등의 감정을 느끼고, 문제에 부딪히고, 갈등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한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동화 속의 인물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된다(이세림, 2011). 생활동화는 동

시대의 또래 영아나 유아들의 생활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영아들은 마치 자신이 등장인물인 것처럼 느끼며, 감정이입하거나 동일시하기 쉽고(김세희, 2000), 이를 통해 영아로 하여금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다(강문희, 이혜상, 1997).

생활동화는 다루고 있는 주제나 소재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데, 김세희(2000)는 영아의 경험세계에 따라 영아의 내적 세계를 다룬 동화, 가족 세계를 다룬 동화, 사회적 세계를 다룬 동화, 자연전 세계를 다룬 동화로 구분하였고, 서정숙과 남규(2010)는 심리적 과업 및 문제 해결, 가족과의 관계, 가족 외 생명과의 관계, 자연의 모습이나 자연과의 관계, 다문화 및 반 편견, 여러 가지 위기 상황 등 좀 더 폭넓은 주제의 범위로 분류하였다. 최근에는 현대 사회의 가치 변화나 사회문제 등을 반영하여 환경, 다문화, 평화, 죽음, 노화, 이혼 및 다문화 가정, 성 역할 등의 다양한 주제와 소재들이 생활동화에 나타나고 있다.

생활동화의 가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서정숙, 남규, 2010). 첫째,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과 문제에 대한 간접 경험을 통해 다양한 삶에 대한 통찰력을 기를 수 있다. 둘째, 등장인물과의 동일시 및 감정이입을 통해 다양한 사람에 대한 이해 및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셋째, 이야기 속 문제나 갈등을 보면서 자신만 겪는 문제나 갈등이 아님을 알고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넷째, 등장인물로부터 문제 해결력을 배울 수 있다.

이처럼 생활동화는 영아의 경험세계를 바탕으로 영아가 직면한 문제나 어려움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서 영아들로 하여금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생활동화는 이와 같은 교육적 가치를 가지므로 일상생활에서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는데 효과적인 교육적인 매체가 될 수 있다.

3. 어머니와 영아의 그림책읽기

1) 어머니와 영아의 그림책읽기의 중요성

글을 읽지 못하는 영아는 주로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애정적인 분위기에서 친숙한 어머니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으며 그림책을 읽는다. 어머니와 영아의 그림책읽기는 어머니와 영아 사이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어머니와 영아 모두에게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을 제공한다(육길나, 2008). 어머니가 정성껏 그림책을 읽어주고, 이를 영아는 귀 기울여 들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풍부한 공감과 기쁨이 생겨나며 즐거움을 만들어낸다(마쓰이 다다시, 1990). 또한 그림책은 사랑, 어둠에 대한 두려움, 새로 태어나는 동생이 가족에게 가져올 수 있는 변화 등의 다양한 감정과 경험을 다루는데, 이와 같은 내용의 책을 읽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 자체가 영아들이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을 이해하게 하는 데 매우 소중한 감성 교육이 될 수 있다(Cooling, 2003). 이러한 경험은 특히 영아로 하여금 정서적인 안정감과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여 어머니와 영아 간의 친밀감이 커지고, 정서적 유대가 돈독해지며(이상금, 1990), 이는 어머니와의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여 이후 긍정적인 대인관계 발달의 기초를 이룬다.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은 일상생활이나 놀이 상황에서보다 책읽기 상황에서 상호작용의 양이나 질이 더 높아 책 읽어주기가 영아의 언어발달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촉진하는 의도적인 언어활동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김금주, 2000). 책 읽기 활동 시 어머니는 읽기 모델이 되며, 영아의 적극적인 참여를 격려하는 등 영아의 문해 학습을 지원해주고(McGee & Richgels, 1996; 채유진, 1999, 재인용), 영아는 어머니가 읽어주는 다양한 문장과 어휘를 듣고, 따

라해보고, 어머니의 질문에 대답하며 문해력이 증진된다. 또한 Wells(1985)는 32명의 영아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1-3세 때의 이야기 듣기 빈도는 5세 때의 문어, 구어 능력 및 7세 때의 독해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초기의 읽기는 영아의 언어 능력에 장기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김지윤, 2002, 재인용). 즉 어머니와 영아의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은 영아에게 풍부한 언어적 환경을 제공하여 영아의 언어 및 문해 능력 발달을 자극하고 이후의 언어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영아는 어머니와 그림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아직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세계를 인식하며 경험의 폭을 확장해간다. 그 과정에서 영아는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 새로운 지식 사이의 인지적 불균형을 동화와 조절을 통하여 해결해가며 인지적인 발달을 이룬다. 어머니와의 그림책 읽기는 영아의 인지구조에 영향을 주고, 인지발달을 자극해 사고를 더 넓게 확장시킬 수 있게 해준다(Jensen, 1984; 김지윤, 2002 재인용).

이처럼 어머니와 영아의 그림책읽기는 언어, 인지, 사회·정서 등의 영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질적인 상호작용을 돕는 의미 있고 효과적인 활동이다.

2) 어머니와 영아의 그림책읽기 상호작용 선행연구

어머니와 영아가 그림책을 읽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은 영아의 연령과 발달수준, 어머니의 배경이나 상호작용의 유형, 그림책의 장르 및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먼저 영아의 연령과 발달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Senechal과 그의 동료들(1995)은 9개월, 17개월, 27개월 영아와 함께 책을

읽을 때 나타나는 부모의 언어적 행동유형을 주의환기, 설명, 질문, 피드백의 기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9개월과 17개월 영아의 부모들은 27개월 영아의 부모들보다 주의환기와 설명을 더 많이 하였고, 질문과 피드백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였다. 특히 27개월 영아 부모의 경우, 그림책을 읽을 때 주의환기와 설명을 번갈아가며 시작하고, 부모의 질문, 아동의 반응, 부모의 피드백 제공, 그 이후 영아의 또 다른 반응, 부모의 또 다른 질문과 설명 등 몇 가지 행동이 뒤따르는 진보된 형태의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이영자, 이종숙(1996)은 12~31개월의 영아가 24~43개월까지 성장하는 동안 부모와 영아 간의 책읽기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부모는 3세 영아에게 질문을 가장 많이 하고, 주의환기는 영아의 연령이 낮을수록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1, 2세 영아에게는 명명을 요구하는 질문을 많이 하고, 1세 영아에게는 2, 3세 영아보다 장소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는 등 영아의 연령에 따라 사용하는 질문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Wheeler(1983)는 영아가 17개월일 때는 주로 책에 있는 그림을 묘사하던 어머니들이 1년 후에는 질문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3, 4세 영아의 어머니들은 책에 나오는 정보를 넘어선 질문을 종종 하는 반면, 1세 영아의 어머니들은 책에 나오는 개별 단어의 명칭에 초점을 둔다고 보고하였다 (채유진, 1999 재인용).

이처럼 어머니들은 영아의 발달 수준과 연령에 따라 다른 언어적 행동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영아의 책읽기 참여도를 높이거나, 책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어머니들의 배려로 보인다.

어머니의 배경이나 상호작용의 유형도 책 읽는 과정에서의 어머니-영아 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고진숙(2004)은 그림책 읽기 활동 시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언어

적 유형이 다르다고 하였다. 35세 이상의 어머니는 설명하기가 많이 나타났고, 30세 미만과 30~35세 미만의 어머니는 질문하기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30세 미만과 30~35세 미만의 어머니가 35세 이상의 어머니보다 그림책 읽기 활동 시 보다 능동적으로 책읽기에 참여함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림책 읽기 활동에서 어머니의 언어유형에 따른 영아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언어유형 중 설명하기에 대해 영아는 질문과 모방, 자발적 대화 많이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지시하기에는 모방과 비언어적 반응을 많이 보였다. 어머니의 질문하기에는 명명, 응답 반응이 많이 나타났으며, 피드백에는 자발적 대화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Ninio(1980)는 17~22개월의 영아와 부모들을 대상으로 사회 계층에 따른 그림책 읽기 행동 특성과 영아의 어휘 습득에 관해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어머니들은 ‘어디’질문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영아들은 생산적 어휘를 많이 사용하였고,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영아들은 모방적 어휘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어머니들이 영아로부터 능동적인 명명을 유도해 내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아가 생산적 어휘를 덜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이영경, 2000 재인용).

그림책의 장르나 종류가 다양해지고, 고유한 특성이 명확한 책들이 나타나면서 어머니와 영아간의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에서 그림책 변인의 영향이 중요해졌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Senechal과 그의 동료들(1995)은 9개월, 17개월, 27개월 영아와 부모들이 글이 있는 그림책과 글 없는 그림책을 읽을 때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글이 있는 그림책을 읽을 때 9개월 영아의 부모는 설명을 많이 했고, 17개월과 27개월 영아의 부모는 질문을 더 많이 했으며, 글 없는 그림책을 읽을

때 27개월 영아는 글 있는 그림책보다 말을 더 많이 하고, 부모는 피드백을 더 많이 제공하였다.

채유진(1999)은 글 있는 책을 읽을 때와 글 없는 책을 읽을 때 어머니와 영아의 언어적 행동 및 비언어적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글 있는 책을 읽을 때 어머니는 ‘어디’질문을 많이 하고, 영아는 비언어적 반응을 많이 보이며, 이에 따라 영아의 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피드백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글 없는 책을 읽을 때 어머니는 명명, 묘사, 추론·예측, ‘무엇’질문, ‘기능/행동’ 질문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주(2002)는 책의 종류를 친숙한 책과 낯선 책, 토이북과 보드북으로 나누어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들은 낯선 책을 읽을 때 명명하기, ‘누구’질문을 많이 하였고, 영아들은 낯선 책일 때는 응답, 모방 등의 언어적 행동을 많이 보였고, 친숙한 책일 때는 소리내기, 책장 넘기기 등의 비언어적 행동이 많이 나타났다고 한다. 토이북과 보드북의 경우, 어머니들은 토이북을 읽을 때 묘사, 요청 등의 언어적 행동을 더 많이 하였고, 영아들은 토이북을 읽을 때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김재순(2003)은 어머니와 만 2, 4세 영유아의 책읽기 활동 시 글 있는 책과 글 없는 책에 따라 어머니의 상호작용 유형과 영유아의 반응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연구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는 전체적인 상호작용과 질문하기와 피드백을 글 있는 책에서보다 글 없는 책에서 더 많이 사용하였고, 영유아는 글 있는 책보다 글 없는 책에서 언어적 반응과 비언어적 반응 모두를 더 많이 하였다.

김명숙(2008)은 까꿍놀이 그림책과 명명하기 그림책에 따른 어머니와 영아의 의사소통 전략을 알아보았다. 어머니는 까꿍놀이 그림책과 명명하기 그림책 모두에서 언어적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였고, 까꿍놀이 그림책을 읽을 때

질문하기와 포인팅, 주의환기, 설명하기 순으로 의사소통하였고, 명명하기 그림책을 읽을 때는 설명하기와 포인팅, 질문하기를 주로 사용하였다. 영아는 까꿍놀이 그림책과 명명하기 그림책 모두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였고, 까꿍놀이 그림책을 읽을 때 말없이 책 쳐다보기, 웃거나 미소 짓기, 책장 넘기거나 시도하기, 조작하기, 손으로 지적하기 등의 순서로, 명명하기 그림책을 읽을 때는 말없이 책 쳐다보기, 책장 넘기거나 시도하기, 손으로 지적하기, 책과 관련 없는 행동하기, 거부하거나 거절하기 등의 순서로 의사소통하였다.

이처럼 그림책의 글의 유무, 책의 친숙도, 책의 특성 등에 따라 어머니와 영아간의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시 어머니와 영아의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때 어머니와 영아의 책읽기 상호작용은 책읽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와 영아의 언어적·비언어적 행동특성을 범주화하여 그것이 나타난 빈도를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로, 책읽기 상호작용의 특징을 알 수 있다.

한편 책 읽기 과정에서 어머니와 영아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나누는지 상호작용의 과정을 질적으로 연구한 사례도 있다. 고우리(2013)는 그림책읽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전략을 문화기술적인 방법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영아는 읽고 있는 그림책이나 읽어주는 어머니의 얼굴 말없이 바라보기를 통해 관심 표현하기, 책장 넘기기로 다음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 표현하기, 어머니의 행동 모방하기, 미소와 웃음으로 지속시키기, 밀치거나 책 덮기로 거부의사 표현하기 등의 전략을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경우 언어적 자극을 통한 주의환기 시키기, 그림의 특성을 살리는 음성언어 사용하기, 영아의 경험과 책 내용 연결시키기, 영아 의사 확인하기 및 참여시키기, 설명을 통해 정보 제공하기,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및 신체 움직임

을 이용한 관심 끌기 등의 상호작용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연구자는 어머니와 영아의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은 영아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며, 영아의 성장 발달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였다.

영아그림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그림책, 영아, 어머니 삼자 간의 독서 상호작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들 삼자 간의 상호작용을 고찰한 연구도 있다.

김민화(2005)는 동일한 내용과 개념을 다루지만 다양한 형식과 주제로 구분될 수 있는 책의 종류를 나누어 어머니와 영아가 함께 읽고, 그림책의 특성에 따라 어머니와 영아의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전략, 어머니가 영아에게 읽어주는 텍스트의 변형 전략 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그림책의 글과 그림이 가지는 형식이 어머니와 영아가 그 형식에 적합하게 의사소통 방식을 바꾸어 나감을 알 수 있었으며, 어머니와 영아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맥락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변윤희(2005)는 김민화의 연구에서 사용한 동일한 그림책을 가지고 그림책에 대한 평가가 영아와 함께 그림책을 읽기 전과 후에 그림책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는 것을 통하여 그림책, 영아, 어머니 삼자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였다. 사전에 어머니가 그림책을 혼자 읽고 이해하고 평가한 결과는 영아와 함께 읽고 이해하고 평가한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영아의 어머니가 영아의 특성과 그림책을 특성을 제대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따른 영아그림책에 대한 평가기준 개발, 보급과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어머니와 영아의 그림책읽기 상호작용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은 어머니 변인, 영아 변인, 그림책 변

인 등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상호작용의 유형 및 특징을 관찰할 수 있고, 각 변인들의 상호맥락적인 관계에 따라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만 2세 영아 4명과 그들의 어머니 4명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서울시의 서로 인접한 A, B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4가정 모두 중산층 가정으로 생활환경이 유사하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이름(가명)	월령	성별	어머니의 연령	거주지
건하	34	남	1979년생	서울시 A구
민호	32	남	1979년생	서울시 A구
예서	33	여	1981년생	서울시 B구
현민	32	남	1979년생	서울시 B구

* 영아의 이름은 가명임.

1) 건하와 어머니

건하는 2010년 7월생으로 34개월 무렵 연구에 참여하였다. 건하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건하, 여동생(2013년 3월 생)이며, 주 양육자는 어머니이다. 건하는 22개월부터 가정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며, 부끄러움을 타고 다소 소극적이다. 어린이집 교사였던 어머니와 함께 어린이집에 다녔던 경험 탓 인지 어머니를 많이 의지하고, 어머니 또한 일상생활에서 건하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었다. 특히 저체중과 편식, 스스로 밥 먹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어머니가 많은 걱정을 하였다. 건하는 그림이 특이한 그림책, 자동차와 관련된 그림책을 좋아하지만, 책을 볼 때 자신이 좋아하는 책만 보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 평소에 건하는 어머니가 책 읽어주는 것을 거부하여 어머니와 함께 책 읽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신 한 달에 두 번 가정 방문 교사를 통해 그림책을 읽고, 그와 관련된 놀이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다.

건하의 어머니는 결혼 전 어린이집 교사였고, 현재는 건하와 여동생을 양육하는 전업주부이다. 연구 초기 둘째를 출산한지 백일도 되지 않았을 때라 육체적·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편안하고 침착한 성격으로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다. 건하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어린이집 교사 경력이 있어서인지 건하의 방도 교실처럼 교구장과 책장을 활용하여 건하의 장난감과 책을 정리해두었다. 건하가 책에 흥미를 갖고 스스로 책을 보면서 애착을 형성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2) 민호와 어머니

민호는 2010년 9월 생으로 연구 중반부터 추가로 참여하게 되었다. 민호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민호로 이루어져 있다. 민호는 외동아이이며, 보육기관에 다닌 경험이 없고 육아 휴직 중인 어머니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민호는 온순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어머니의 말에 순종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다. 식사습관이나 배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등의 기본생활습관이 잘 형성되어 있었고, 어린이집은 다니지 않지만 수영, 박물관, 도서관 다니기, 바깥놀이 등을 하며 대체로 규칙적인 일과를 보낸다. 민호는 도서관이나 서점을 다니면서 책과 친숙한 상태이며, 특히 자동차와 관련된 그림책보기를 좋아하

였다.

민호의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로 현재는 민호의 양육을 위해 육아 휴직 중이다. 민호의 건강한 성장과 질 높은 교육적 경험을 위해 바른 먹거리와 다양한 체험활동 등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런 적극적인 성향에 연구에도 흔쾌히 참여해주셨고, 연구 기간 동안에도 민호의 행동이나 변화 등에 주의를 기울이고 세심하게 관찰하였다. 민호의 어머니는 민호와 함께 도서관, 서점 등을 다니면서 민호가 다양한 책을 접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 민호의 흥미와 요구 등을 고려하여 지원해주기도 하였다. 한 예로 연구 당시 민호가 할머니 댁의 텃밭에서 오이, 호박 등의 작물을 수확해보고, 들꽃이나 풀 등을 관찰하며 식물에 관심을 보이자 어머니는 식물도감을 준비하여 민호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책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3) 예서와 어머니

예서는 2010년 8월생으로 33개월 무렵 연구에 참여하였다. 예서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예서, 남동생(2012년 4월 생)이며, 예서의 부모님은 맞벌이 부부이다. 아버지, 어머니가 회사에 가신 동안 예서는 남동생과 함께 집 근처에 살고 계시는 외할머니 댁에서 지내며, 외할머니와 이모할머니께서 양육을 도와주고 계신다. 예서는 25개월부터 외할머니 댁 근처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며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어린이집에서 지내고 등·하원은 외할머니와 한다. 예서는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이며 언어 발달이 또래에 비해 빠른 편이다. 기본 생활 습관 면에서는 잠자기, 배변 등은 잘 하고 있으나 밥을 잘 안 먹고, 편식하는 습관이 있다. 책 읽기는 주로 잠자기 전에 어머니와

함께 1~2권씩 읽으며, 예서는 간단한 스토리가 있는 그림책을 좋아한다. 그림책의 그림만 보고 스스로 이야기를 꾸며 읽기도 한다.

예서의 어머니는 예서를 출산하기 전까지 마케팅 관련 일을 했었고, 현재는 친정아버지가 운영하시는 무역회사에서 재무 담당을 하고 있다. 워킹맘이기 때문에 다른 가정에 비해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퇴근 후나 주말, 휴가 등의 시간 동안 아이들과 의미 있게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었다. 예서에게는 친구 같은 어머니, 재미있고 유쾌한 어머니였고, 예서의 생각이나 이야기를 잘 들어주려고 하였다.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이나 그림책은 거의 친척들에게 물려받고, 다른 가정에 비해 그림책의 수는 적은 편이었다.

4) 현민이와 어머니

현민이는 2010년 9월생으로 32개월 무렵에 연구에 참여하였다. 현민이의 가족은 친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누나 2명(만 5세, 만 4세), 현민이로 대가족이다. 주 양육자는 어머니이며 현민이는 18개월부터 누나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함께 다니고 있다. 현민이는 세 자녀 중 막내로 외향적이고 활발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림책을 읽을 때는 어머니와 현민이 둘이 읽기보다는 누나들이 읽을 때 같이 읽는 경우가 많으며 동물이나 캐릭터가 등장하는 그림책을 좋아한다.

현민이의 어머니는 전업주부이면서 사이버대학에서 보육학을 공부하고 있다. 대가족의 주부, 세 아이의 어머니로서 가사와 육아에 대한 부담과 고충이 많아보였지만, 긍정적인 사고와 활력 넘치는 추진력으로 며느리, 아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현민이와 어머니의 관계

는 무척 좋은 편이나 세 자녀 중 막내이기 때문에 누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머니와 단 둘이 책을 본다가나 놀이를 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이러한 점을 어머니도 아쉬워하고 있었다. 현민의 어머니는 세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2. 연구절차

1) 연구 승인

연구 주제를 정한 후 연구 참여자를 찾던 중에 연구자가 다니는 서울의 Y 교회 내의 여전도회 모임에서 연구 참여자를 구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 모임에서 연구에 관심이 많았던 건하, 민호, 예서, 현민 어머니가 연구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자녀들의 월령도 31~33개월로 비슷하여 연구 참여자로 결정하였다.

2) 예비관찰

참여관찰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 외의 또 다른 어머니와 영아 간의 생활동화 읽기 과정에 대한 예비 관찰을 실시하였다. 예비 관찰을 통해 연구자가 방문했을 시 영아가 몇 권의 책을 읽을 수 있는지, 동영상 촬영 시 카메라 작동법 및 카메라 위치 선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예비관찰에 따라 참여관찰 시 그림책은 1~2권 읽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카메라의 위치는 어머니와 영아의 책 읽는 모습이 잘 보이면서도 영아의 시선과 정면으로 마주치지

않는 곳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예비관찰에서 영아가 카메라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첫 방문 시 영아에게 카메라를 탐색 할 기회를 주고 카메라의 용도와 사용법을 미리 알려주기로 하였다.

3) 생활동화 선정

본 연구에서는 생활동화 읽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해 총 21권의 그림책을 선정하였다. 먼저 표준 보육과정에서 기본생활습관과 관련된 기본생활 영역-건강한 생활 중 자조능력과 관계되는 하위내용을 근거로 기본생활습관과 관련된 일상생활을 이닦기·손 씻기·목욕하기, 스스로 옷 입고 벗기, 스스로 먹기, 배설하기, 잠자기 등의 5가지로 구분하였다. 그 후 그림책을 선정하기 위해 현은자, 김세희(2005)의 이론적 근거와 어린이 도서 연구회(2012)의 권장도서, 열린어린이 선정 좋은 그림책 선정도서, 영아보육과정의 기본생활습관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그림책(이명순, 광승주, 전영희, 2010), 김정원, 남규(2010)의 연구 등을 토대로 만 2세 영아에게 적절한 기본생활습관과 관련된 생활동화를 1차 선정하였다. 1차 그림책 선정 시 연구자의 그림책 선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자조기술과 관련된 일상생활을 담은 이야기일 것, 둘째,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표현되어 있을 것, 셋째, 글이 간결하고 운율과 리듬이 있는 것, 넷째, 그림과 글이 조화를 이루는 것 등이다. 1차 선정한 그림책을 가지고 유아교육전공 교수 1인, 어린이집 경력 5년 이상인 영아반 교사 2명에게 연구의 목적에 적절한 그림책을 검토 받아 2차 선정하였다. 위의 근거와 절차를 기준으로 선정된 그림책은 표 2와 같다.

<표 2> 기본생활습관과 관련된 그림책 목록

기본생활 습관 관련 일상생활	도서명	저자/삽화가	역자	출판사
이 닦기 · 손 씻기 · 목욕하기	이 닦기 싫어	차보금/박정화	·	삼성출판사
	치카 치카	이지현/이민혜		시공주니어
	양치질 안할래	김세실/황미진		베틀 북
	손부터 씻고	디디에 뒤프레슨/ 아르멜 모테레	이향	키다리
	목욕탕에서 침범침범	마쓰타니 미요코/ 이와사키 치히로	임은정	프로메테우스출판사
스스로 옷 입고 벗기	혼자 입어요	디디에 뒤프레슨/ 아르멜 모테레	이향	키다리
	옷을 입자 째째	정은정/박해남	·	비룡소
	쏘옥 옷입기 놀이	기무라 유이치	김미형	웅진주니어
	혼자서 입을 거야	우메즈 치오	바움	푸름이닷컴
스스로 먹기	냠냠 식사놀이	기무라 유이치	김미형	웅진주니어
	숟가락 들고 냠냠	정은정/신진주	·	비룡소
	모두 모여 냠냠냠	이미애	·	보림
배설하기	내 당근 봤니?	함지슬/임경희	·	애플비
	똥이 풍덩	아로나 프랑켈	·	비룡소
	응가하자, 끽끽	최민오	·	보림
	끽끽 응가 놀이	기무라 유이치	김미형	웅진주니어
잠자기	내 쉬통 어딴어	크리스틴 슈나이더/ 에르베 뻬넬	허보미	그린·북
	헛! 이제 잘 시간이예요	디디에 뒤프레슨/ 아르멜 모레	이향	키다리
	아기 양아! 이제 잘 시간이야	모 윌렘스	홍연미	살림어린이
	사랑해 자장자장 사랑해	캐롤라인 제인 처치	신형건	보물창고
	쿨쿨 자장놀이	기무라 유이치	김미형	웅진주니어

3. 자료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5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이며, 참여관찰과 심층면담, 어머니의 저널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체적인 자료수집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참여관찰

참여자인 영아가 가장 편안하게 어머니와 책을 읽는 공간은 영아의 가정이다. 그래서 연구자는 영아의 사적이고 편안한 공간인 가정으로 들어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어머니와 영아의 책 읽는 장면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참여관찰은 네 가정에서 각각 1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총 12회씩 이루어졌고 2013년 5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14주간 진행하였다. 각 가정의 상황과 영아의 컨디션에 따라 연구 일정은 융통성 있게 조정하였다. 1주에 1회 관찰을 기본으로 하되 참여 영아가 아플 경우 그 다음 주에 2회 관찰을 하기도 하고, 한 주를 늦춰서 관찰하기도 하였다. 이에 총 연구기간은 14주였다.

연구기간 동안 네 가정의 어머니와 영아는 총 21권의 생활동화를 읽었고, 한 주에 1~2권씩 읽고 참여관찰 시 읽은 책은 일주일동안 각 가정에서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관찰 시 연구자는 영아와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그림책을 읽을 수 있도록 가능하면 영아와 어머니의 시선에서 벗어난 공간에 위치하여 관찰을 하였다. 영아들은 디지털 카메라에 관심이 많았는데, 촬영 전에 무엇을 왜 촬영하는지 설명해주고, 직접 카메라를 만져보고, 촬영한 동영상을 함께 보기도 하면서 카메라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관찰하는 동안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 책 읽기 전·후의 과정, 관찰하면서 궁금한 점, 떠오르는 생각 등을 자세하게 현장기록을 하였고, 전사할 때 보충자료로 활용하였다.

2) 비디오 분석법

연구자는 생활동화 읽기에 초점을 맞추어 관찰을 하고 어머니-영아 간의 생활동화 읽기 상호작용 과정을 디지털 카메라로 녹화하고 이를 전사하였다. 비디오 녹화는 인간의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언어와 몸짓)을 원상태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상호작용과 실제 사회적 구성의 미시적 순간을 탐구하는 미시문화기술지의 영역에서는 필수적인 연구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이용숙, 김영천, 이혁규, 김영미, 조덕주, 조재식, 2011). 비디오 녹화는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창이 되었고, 그 창을 효과적으로 연구에 적용하기 위해 당일 녹화한 파일은 당일 혹은 그 다음 관찰 전까지 전사하려고 노력하였다.

3) 심층면담

어머니와의 면담은 비형식적 면담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중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궁금증, 그림책을 읽은 후 나타나는 영아의 생활 전반에 대한 변화나 어머니의 변화 등이 있으면 그와 관련하여 어머니에게 면담을 하는 비형식적 면담을 하였다. 면담은 매주 참여관찰 시 참여관찰 전·후에 매 주 1~2회씩 이루어졌으며, 시간은 30분~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의 모든 과정은 참여 어머니들의 동의를 구하여 현장노트에 기록하였고, 당일 연구자의 컴퓨터에 개별 문서로 기록을 옮겨 저장하였다.

4) 어머니의 저널

연구자는 어머니와 영아가 참여 관찰 당일 읽었던 생활동화를 일주일동안 가정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가정에서 생활동화를 읽으면서 나타나는 영아의 책에 대한 흥미, 어머니와 읽었던 책과 관련된 대화나 경험, 영아의 자조능력이나 기본생활습관과 관련된 행동 등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이므로, 이를 어머니들이 저널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도구는 참여관찰 시 디지털 카메라에 녹화된 동영상 파일, 동영상 전사 본, 어머니의 저널, 어머니의 면담을 기록한 문서이다. 수집된 자료는 표 3과 같다.

<표 3> 수집된 자료의 종류

자료의 종류	분량
어머니와 영아 간의 생활동화 읽기 과정 전사본	A4 183쪽
어머니와의 면담 내용	A4 11쪽
어머니의 저널	A4 14쪽

Giorgi(1985)는 현상학적 방법에 네 가지 단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첫째, 전체 기술 내용을 읽는 것이다. 두 번째 전체에 대한 인식이 파악되면, 연구되고 있는 현상에 초점을 두고 다시 그 텍스트를 철저하게 읽고, 셋째 ‘의

미 단위'의 윤곽이 파악되면 그것 속에 포함된 심리학적 통찰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자의 경험에 관한 일관적인 진술로 통합시키는 것이다(최예린, 2010, 재인용).

Creswell(1998)은 현상학 자료 분석을 제시하였는데 자료처리, 기술, 분류, 해석의 단계가 있다(최예린, 2010, 재인용). 자료처리 단계에서는 자료를 위한 파일을 만들고 조직화하고, 읽기와 메모에서 전체 텍스트를 읽고, 여백 노트를 만들고, 최초의 코드를 형성한다. 기술단계에서는 연구자에게 주는 경험의 의미를 기술하고, 분류단계에서는 진술들을 의미 단위로 묶는다. 마지막으로 해석 단계에서는 '무엇이 일어났는지' 조직적으로 기술하고 발전시키고, '어떻게' 현상이 경험되는지 구조적 기술을 발전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 분석을 하였다.

<표 4> 연구자의 자료 분석

분석 단계	분석 내용	코드의 예 (38쪽-건하의 사례)
자료 처리	녹화된 상호작용을 당일 전사하여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전사한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종이 한 부분에 각 에피소드를 대표하는 최초의 코드를 만들었다.	전사한 텍스트를 읽고, 읽으면서 떠오른 연구자의 생각과 사례의 내용을 '메모'란을 만들어 "영아 자신의 능력에 대한 표현, 어머니의 피드백"이라고 적음.
기술	장면, 상황, 행동, 사건 등에 따라 임의로 코드를 부여하였다.	위와 동일한 사례들에 파란색 테이프로 임의 코드 부여
분류	선행연구 주제와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서로 비슷한 요인을 가진 주제들을 다시 묶었다.	빨간색 테이프로 임의 코드를 부여한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내용과 비슷한 주제여서 빨간색 코드와 파란색 코드를 빨간색 코드로 묶음.

해석	<p>분석되어진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해석간의 관련성을 드러내기 위해 적절한 주제를 끝없이 탐색하였다.</p>	<p>빨간색 코드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하위 내용별로 숫자 코드 부여. (빨-①, 빨-②, 빨-③, 빨-④) 빨-① : ‘영아의 올바른 기본생활 습관 격려하기’로 제목 붙임.</p>
----	---	--

전사한 자료를 계속 읽고 분류,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구체적인 해석의 과정으로 들어가고 각 사례들이 어떤 유형의 상호작용인지 범주화 하였다.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과 관련된 선행 연구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공통 또는 차별화 되는 어머니와 영아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영아의 발달 특성 상 생활동화 읽기 과정에서 그 반응을 관찰하기는 어려우므로 영아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난 영아의 행동이나 태도 등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어머니의 저널과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에 어머니와 영아의 생활동화 읽기 상호작용과 어머니의 저널과 면담자료를 함께 보면서 반복적으로 읽고, 범주화하는 과정을 통해 영아의 의미 있는 반응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의 신뢰성을 위하여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충분한 기간 동안의 집중적인 관찰, 트라이앵글레이션, 심층기술, 참조자료의 사용, 동료연구자에 의한 조언과 지적, 반성적 주관성 등 6가지 준거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관찰자 효과, 한 기간 동안 수집된 자료가 가질 수 있는 한계성 등을 극복하기 위해 14주 동안 각 영아 당 총 12회의 관찰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관찰자 효과는 습관화로 최소화시킬 수 있었고, 자료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일관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어머니와 영아 간의 생활동화 읽기에서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과 관찰과정에서의 오류와 해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참여관찰, 비디오 촬영, 면담을 통한 기술을 병행한 심층적 자료기록 등 다각적인 방법을 이용하였다.

어머니와 영아 간의 생활동화 읽기 과정을 제 3자가 보더라도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기술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현장 노트 및 연구일지를 작성하였고, 사진, 동영상 촬영 파일 등을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의 연구결과가 타당한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보다 객관화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지도교수, 질적 연구방법 교수, 함께 수업을 듣는 동료 연구자들의 조언과 비평, 지적 등의 과정을 수시로 거치면서 본 연구자가 미처 찾아내지 못한 주관성에 대한 조언을 받음으로써 타당성 있고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기간 동안 연구자의 연구 의도를 배제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연구자의 편견과 해석의 오류를 줄이고자 노력하였고, 특히 연구 의도에 대한 지속적인 질문을 반복함으로써 보다 타당하고 심층적인 자료수집 및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생활동화 읽기과정과 일상생활에서 나타난 어머니-만 2세 영아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생활동화를 읽으면서 나타난 영아의 반응을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분석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생활동화 읽기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상호작용

연구자는 참여관찰과 어머니의 저널을 통해 생활동화 읽기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와 영아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어머니와 영아가 생활동화를 읽는 장면을 녹화한 동영상과 전사한 자료와 어머니의 저널, 면담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선행연구물을 함께 탐독하였다. 그 과정에서 영아와 어머니의 생활동화 읽기에서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그림책의 매체적 특성이 상호작용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김민화, 2005)는 관점에 착안하여 어머니와 영아 간의 생활동화 읽기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호작용은 생활동화의 장르적 특징을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연구자는 이를 기본생활습관 중심의 이야기 나누기, 생활동화를 통한 교감, 소통 및 공감대 형성하기, 자녀를 위한 독서 지도의 인식 및 태도 형성하기로 범주화하였다.

1) 기본생활습관 중심의 이야기 나누기

어머니와 영아가 생활동화를 읽을 때 올바른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영아는 생활동화를 읽으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잘 하는

것, 좋아하는 것 등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어머니는 이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며 영아의 능력을 인정해주었다. 어머니는 긍정적인 피드백뿐만 아니라 영아들이 올바른 기본생활습관의 인식 형성과 구체적인 방법을 습득하고, 생활습관 개선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였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아의 올바른 기본생활습관 격려하기

영아들은 생활동화에서 나오는 옷 입기, 배변하기, 식사하기 등의 다양한 상황에 관심을 보이고 영아 자신과 관련짓기를 즐겼다. 생활동화 속 상황과 유사한 영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것, 아는 것 등의 자신의 긍정적인 능력을 자발적으로 발언하며 상호작용을 이끌었고, 어머니들은 이에 반복적인 답변 및 호응을 통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상호작용하였다.

다음은 건하와 어머니가 옷 입는 순서를 알려주는 “옷을 입자 째째”책을 읽으며 상호작용하는 사례이다.

어머니 : 냇, 다섯 개~ 다섯 개야~ **나왔다 나왔어~발가락도 나왔다~1)**

(책장을 넘긴다.) **올리자 올리자 바지를 올리자. 허벅지 위로**

건하 : 건하 바지 잘 올리지~

어머니 : 어~건하 바지 잘 올리지~

(2013. 5. 30. 참여관찰)

위의 사례에서 건하는 주인공이 바지를 올리는 장면을 보고 어머니가 책을 읽는 도중에 “건하 바지 잘 올리지~”라며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있다고 말하

1) 어머니와 만 2세 영아의 상호작용 전사 자료에서 생활동화 본문의 내용일 경우 진하게 표시하였다.

였다. 이에 어머니도 건하의 말을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건하를 격려해주었다.

다음 민호의 사례에서도 유사한 상황을 볼 수 있다. “끔끔 응가놀이”를 읽고 있는 민호와 어머니의 상호작용 장면이다.

어머니 : 이번에는~(그림을 가리키며) 이거 뭐하고 있지?

민호 : (말없이 그림을 본다.)

어머니 : 엉덩이를 휴지로 닦고~

민호 : (책장을 넘긴다.)

어머니 : 그 다음에 응가 안녕~물을 송~내렸지~ 응가가 없어 졌네~

민호 : 신발 신고?

어머니 : 어~신발도 신고~민호도 응가 한 다음에 엄마가 엉덩이 닦아주면

민호가 뭐하지?

민호 : 민호가 신발 신고?

어머니 : 응~민호도 신발 신고 응가하지~!

(2013. 7. 15. 참여관찰)

어머니가 읽어주는 흐름에 따라 그림을 보거나 책장을 넘기던 민호가 주인공이 화장실 변기를 이용하는 장면에서 “신발 신고?”라고 말하였다. 글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주인공이 화장실 욕실화를 신고 배변하는 장면을 보고 말한 것이다. 어머니는 민호의 그 말을 반복하는 것으로 피드백하고 배변 후 변기 물을 내리는 다음 장면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민호는 “민호가 신발 신고?”라고 다시 말하였다. 이에 어머니가 “응~민호도 신발 신고 응가하지~!”라고 민호가 신발을 신고 배변을 한다는 것을 피드백해주고 나서야 다음 상황으로 책읽기를 진행할 수 있었다. 민호는 가정에서 배변활동을 할 때 스스로 욕실화를 신고 변기에 앉아 배변하는 자신의 능력을 표현하고 인정받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예서의 사례로 “내 당근 봤니?”의 야채 먹는 것을 싫어하는 주인공이 야채들을 동물들로부터 숨겨줘야 하는 상황에서 입 속에 넣어 위기 상황을 모면하는 유머러스한 장면을 보면서 어머니와 상호작용하는 내용이다.

어머니 : 이번엔 감자가 굴러 와서 말했어. 나 좀 숨겨줘~

 כות김을 뽕뽕뽕뽕 뽕는 멧돼지가 날 잡으러 와~어디 숨을래?

 네 입 속에~송이 입 속으로 뭐가 들어갔어?

예서 : 감자.

어머니 : 감자가 데구르르~

예서 : 나도 감자 좋아하는데.

어머니 : (책장을 넘기며)우리 감자 찌고 있는데, 그치~~

(2013. 7. 7. 참여관찰)

예서는 평소 편식하는 습관이 있으며 특히 야채는 거의 싫어하지만 그 중 자신이 좋아하는 “감자”가 나오자 “나도 감자 좋아하는데”라며 주인공과 달리 감자를 좋아하고 잘 먹는 자신의 식습관에 대해 표현하고 있다. 마침 어머니는 책 읽기 후 먹을 간식으로 감자를 찌고 있었고, 책 읽기를 마친 후 예서는 책 내용을 언급하며 감자를 맛있게 먹었다.

(2)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과 구체적인 방법의 습득 돕기

책을 읽는 과정에서 각 생활동화의 내용과 관련지어 영아가 올바른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바른 생활습관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며, 구체적인 방법을 습득하도록 돕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 이는 영아의 올바른 기본생활습관 형성 및 실천을 돕기 위한 어머니의 교육적인 의도가 담긴

상호작용으로 어머니의 주도적인 질문이나 요청에 의해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다음은 건하와 어머니가 “씻! 이제 잘 시간이에요.”라는 잠자기와 관련된 생
활동화 읽기 중에 나타난 대화로 주인공이 인형에게 물을 먹이고 채우는 장면
에서 나눈 이야기이다.

어머니 : **목마르니까 물 한 모금 마시고~**

자기 전에는 사탕은 먹으면 돼요, 안돼요?

건하 : 안돼요.

어머니 : 안되지요~(책장을 넘긴다.)

건하 : 입이 썩어~

어머니 : 맞아. 입에 뭐가 있다고?

건하 : 벌레~

어머니 : 벌레 생기지~

건하 : 응~

(2013. 6. 14. 참여관찰)

어머니는 주인공이 인형에게 “자기 전에 사탕은 안돼”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건하에게 잠자기 전에 사탕을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건하는 안된다고 하
였다. 어머니는 건하의 대답에 “안되지요~”라며 반복적으로 말하고 책장을
넘기자 건하는 “입이 썩어~”라며 사탕을 먹으면 이가 썩는다는 사실을 이야
기하였다. 이는 사탕을 먹으면 이에 벌레가 생긴다는 상호작용으로 이어져 결
국 건하는 사탕을 먹으면 이에 벌레가 생겨 썩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 사탕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다.

다음은 “내 당근 봤니?”라는 편식과 관련된 책을 보고 이야기 나눈 현민이
와 어머니의 대화이다.

어머니 : (책장을 다시 앞으로 넘기며) 아까 여기 이렇게 엄마가 송이한테
카레밥을 많~이 주셨는데 송이가 카레밥을 어떻게 했어?

현민 : 다 먹었어.

어머니 : 허~! 다 먹었지~잘 먹었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며) 다 먹었다~!

현민이도 오늘 유치원에서 밥 다 먹었어? 깨끗하게?

현민 : (고개를 살짝 끄덕인다.)

어머니 : 우와 현민이 (현민의 팔을 잡아 위로 올려 흔들며)이제 튼튼해
지겠네~

오늘 현민이 뭐 먹었어? 유치원에서?

현민 : 음~~(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이거랑

어머니 : 당근도 먹었어?

현민 : 아니~ 당근이랑 당근이랑 (그림을 손가락으로 짚으며)이거랑

어머니 : 호박이랑~

현민 : 호박이랑~당근 먹었어.

어머니 : 호박이랑 당근 먹었어? 양파랑 감자는 안 나왔어?

다음에 양파랑 감자 나오면 먹어봐~어떤 맛인지~!

송이도 엄청 많이 먹어서 씹씹해질 것 같아. 그치~

현민 : (고개를 끄덕인다.)

(2013. 5. 27. 참여관찰)

현민의 어머니는 “내 당근 봤니?”의 주인공 송이가 감자, 양파, 당근 등의 야채를 다 먹은 장면을 보며 유치원에서 현민이가 점심을 다 먹었는지, 점심에 먹은 음식은 무엇이었는지 물어보고 있다. 책 속 그림을 보며 현민이가 당근과 호박을 먹어봤다고 하자 어머니는 양파, 감자 등도 먹어 볼 것을 권유하면서 골고루 먹으면 더 씹씹해진다고 말하였다. 어머니는 현민이가 어린이집

에서 점심을 남기지 않고 다 먹은 점과 당근과 호박을 먹어본 것을 격려하며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고 편식하지 않아야 함을 긍정적으로 일깨워주었다.

이 닦기나 손 씻기, 배변훈련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된 생활동화를 읽을 때는 어머니와 영아가 그 방법을 함께 동작으로 따라해 보며 익히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다음의 사례는 “이 닦기 싫어”라는 이 닦기와 관련된 생활동화를 읽으면서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민호가 어머니와 함께 이 닦기를 따라해 보는 내용이다.

어머니 : **그 다음 덜석 베어 먹는 앞니부터~위에서 아래로**(이 닦는 시늉을 하며) **싹싹싹~** 민호야, 이렇게 **치카치카치카~싹싹싹~**

민호 : (어머니를 따라 손을 가로 방향으로 이 닦는 시늉을 한다.)

어머니 : 위에서 아래로~ (민호의 손을 잡으며)이렇게~ 싹싹싹~이렇게~

(2013. 7. 24. 참여관찰)

민호의 어머니는 책에서 이를 바르게 닦는 장면이 나오자 손으로 칫솔을 권 것처럼 동작을 취하며 이 닦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민호도 따라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민호가 어머니를 따라 이 닦는 동작을 하였으나 자세가 올바르지 않자 민호의 손을 잡고 행동을 수정해주며 이 닦기를 해보았다.

다음은 예서와 어머니가 “손부터 씻고” 책을 읽고 있는 장면이다.

어머니 : (책장을 넘긴다.) **손에 사는 세균 때문에 내가 아팠구나. 좋아 좋아. 이제는 손 잘 씻어야지. 손바닥과 손등에 뽀글뽀글 비누칠 하고~**(책장을 넘긴다.) **손바닥을 마주대고 싹싹~손가락을 마주 잡고 조물조물 손등과 바닥을 포개어 쓱~쓱~ 엄지손가락을 감**

싸 쥐고 빙글빙글 손깍지를 끼고 뽀득뽀득 손톱 밑까지 쓱쓱쓱.

예서도 해볼까?

예서 : (고개를 살짝 끄덕인다.)

어머니 : (예서의 손을 잡고) **손바닥을 마주대고 쓱쓱~이렇게 닦고~여기 손가락을 마주잡고 이렇게 조물조물 손바닥을 포개어 쓱~쓱~ 이렇게 하고~ 엄지손가락을 감싸 쥐고 빙글빙글~ 손깍지를 끼고 뽀득뽀득 손톱 밑까지 쓱쓱쓱쓱쓱.** 여기까지 닦는 건가봐.

(2013. 7. 7. 참여관찰)

예서의 어머니는 손 씻는 방법이 그림으로 자세하게 표현된 장면이 나오자 읽어주고, 예서에게 “해볼까?”하고 권유하였다. 예서가 동의하자 어머니는 예서의 손을 잡고 책 속 그림을 보며 함께 손 씻기 동작을 따라하였다. 이를 통해 예서도 어머니도 손 씻기의 방법을 익혔고, 어머니는 예서가 손 씻기에 대한 바른 생활습관을 갖도록 격려하였다.

이처럼 어머니와 영아는 생활동화를 읽으면서 기본생활습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머니의 교육적인 의도가 있었지만 동화의 각 장면과 연결지어 이야기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영아도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질문에 답하고, 어머니의 행동, 책 속의 동작을 따라해 보면서 올바른 기본생활습관을 익혀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3)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약속하기

생활동화 읽기 마무리 단계에서는 주로 어머니와 영아가 바른 생활습관에 대해 다짐을 하거나 약속을 하며 책읽기를 마쳤다.

다음 사례는 현민이와 어머니가 “이 닦기 싫어” 책을 보고 나눈 대화이다.

어머니 : 아~ 잘 닦았네~

현민아, 잊지 마~자기 전에는 꼭 양치질해야 된대~

현민 : (그림책 속 거울에 입 안의 비취 보며) 거미 없네~

어머니 : 현민이는 거미 없네~와~최고! 잘했어요~

현민이 다음부터 맘마 먹고 치카치카 할거야, 안할 거야?

현민 : 할거야.

어머니 : 할 거지~우와, 잘했어~

(2013. 5. 13. 참여관찰)

현민이 어머니는 잠자기 전에 양치질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제 3자의 목소리로 현민이에게 당부하였고, 거울에 자신의 이를 비취보며 충치가 없다고 말하는 현민이의 반응에 동의해 주며 이 닦기에 대한 현민이의 긍정적인 실천 의지를 약속 받았다.

다음은 “내 당근 봤니?”를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건하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이다.

어머니 : 건하, 감자 호박 양파 당근 다 잘 먹을 거예요?

건하 : 네!

어머니 : 네~약속(새끼손가락을 건하에게 내민다.)

그럼 오늘 저녁에 잘 먹어야 돼. 약속 했어~

(2013. 5. 30. 참여관찰)

건하의 어머니는 평소 편식이 심한 건하에게 동화 속에 나온 채소들을 언급하며 골고루 잘 먹을 것을 약속하며 책읽기를 마무리하였다.

다음은 “순가락 들고 남남” 책을 읽고 있는 건하와 어머니의 대화이다.

어머니 : 우와~승욱이는 혼자서 손가락을 들고 밥도 먹고~물도 꿀꺽꿀꺽
마신대~

민호 : (책장을 넘긴다.)

어머니 : 자~다 먹고 나서는 어떻게 인사하지요?

민호 : (고개를 숙이며)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 맞아요~민호야~민호도 이 친구처럼 혼자서 이렇게 밥 먹을 수
있어요?

민호 : 네!

어머니 : 어~오늘 그러면 있다가 봐야겠다, 엄마가~

혼자서 먹나 안 먹나~

(책장을 넘기며) 자 맛있게 먹고~ 다 먹었네~(책을 덮으며) 끝~

민호 : 끝~

(2013. 7. 22. 참여관찰)

민호의 어머니는 “손가락 들고 남남”의 주인공 승욱이가 혼자서 밥도 먹고, 물도 먹는 내용을 보고, 승욱이처럼 민호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민호는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하였고, 어머니는 이를 실천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하며 책읽기를 마쳤다.

이처럼 어머니들은 생활동화 읽기 마무리 과정에서 책에서 나온 바른 생활습관을 영아들도 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으며 앞으로 잘 지켜나가자는 뜻으로 약속을 하였고, 영아들도 이에 대해 대부분 수긍하며 함께 약속을 하였다. 어머니들이 영아에게 생활동화를 읽어줄 때는 기본적으로 영아의 생활습관 형성이나 개선을 바라는 교육적인 의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책을 다 읽은 후에 바른 생활습관에 대한 당부와 약속에 대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4) 기본생활습관 지도 수단으로 생활동화 활용하기

생활동화를 읽으면서 어머니는 영아의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할 때의 도구로서 생활동화를 활용하였다. 일상생활 속에서 영아가 옳지 않은 생활습관을 보일 때 책 속의 상황이나 주인공을 언급하여 영아의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다음 사례는 현민이 어머니가 현민의 이 닦기를 지도했던 내용이다.

‘이 닦기 싫어’에 나오는 충치를 현민이는 ‘개미’로 표현해요. 입에 개미 있다고 하면 양치하고요. 평소에 밥 먹고 나서는 양치 잘 하는데 저녁 식사 후 간식 먹잖아요. 잠자기 전에 간식 먹고 나면 이 닦는 거 귀찮아하는데 개미 얘기 했더니 잘 닦았어요.

(2013. 5.20. 현민 어머니와의 면담)

위의 사례에서 현민이는 잠자기 전에 이 닦기가 귀찮아서 하기 싫어했던 경우로 이 때 어머니는 책 속에 나왔던 충치를 언급하며 이를 닦지 않으면 충치가 생긴다는 것을 현민이가 떠올릴 수 있게 하여 현민이가 이를 스스로 닦도록 지도하였다.

다음은 민호 어머니가 민호의 식사예절을 지도했던 사례이다.

밥을 먹는 도중 남긴 채 카드를 가지고 놀려고 의자에서 일어남.
책에서처럼 다 먹고 “잘 먹었습니다.” 인사해야 한다고 하자 바로 앉아서 식사를 마침.

(2013. 7. 3. 민호 어머니의 저널)

민호의 어머니도 민호가 식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자 함께 읽었던 동화의

상황을 언급하며 바른 식습관태도에 대한 지도를 하였고, 이러한 어머니의 지도에 민호는 바로 행동을 수정하였다.

일상생활에서 기본생활습관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책 속의 상황이나 주인공을 언급하는 것을 넘어 어머니와 영아가 책 속 상황을 역할놀이로 극화하여 재연해보면서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평소 편식 및 식사를 늦게 하는 습관이 있던 예서의 사례이다.

“내 당근 봤니”책을 처음 접한 뒤 아이가 스스로 음식을 먹을 때 포수가 쫓아온다고 말하며 음식을 삼키는 시늉을 했다. 주말에도 동화내용을 몇 차례 언급하며 음식을 먹고...(과일 등)

7월 14일에는 점심식사를 엄마는 밥과 반찬, 아빠는 포수가 되어 역할놀이를 하며 평소보다 월등히 빨리, 즐겁게 먹었다. 평소 40분-> 역할놀이 20분 미만으로 먹음.

(2013.7.14. 예서 어머니의 저널)

“내 당근 봤니”라는 생활동화를 읽은 후 어머니가 동화 속의 상황을 역할놀이로 재구성하여 예서와 즐겁게 놀이하면서 식사를 부지런히 할 수 있었던 경우이다.

영아의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하다보면 영아의 울음이나 생리적인 증상 때문에 어머니의 언어 및 행동적인 방법으로 지도가 불가능할 때가 있다.

다음은 스스로 옷 입기를 시도하였던 현민의 사례이다.

저녁 목욕을 하고 혼자 옷을 입다가 거꾸로 입었다면서...막 울더라구요. 그 때 “혼자서 입을 거야”라는 책을 가지고 와서 책 속의 주인공이 옷을 잘 못 입었을 때 했던 행동을 읽어주었더니 딱 그치고 다시 잘 입었

어요. 그래서 책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2013.7.1. 현민이 어머니의 저널)

현민이는 옷 입기와 관련된 생활동화를 읽은 후로 어린이집에 갈 때, 목욕 전·후에 스스로 옷을 입고 벗기를 시도하고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던 현민이가 옷을 거꾸로 입고 나서 실패감에 울음을 터뜨리자 어머니는 현민이와 같은 실수를 했던 주인공이 등장하는 “혼자서 입을 거야”책을 다시 읽어 주었다. 옷을 스스로 열심히 입었는데 거꾸로 입은 것을 알고 다시 처음부터 옷 입기를 시도하여 성공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현민이는 위로와 용기를 얻었을 것이다. 곧 현민이는 주인공이 옷을 바르게 입었던 방법으로 재시도하여 옷을 입었고, 그 성취감 때문인지 책을 반복해서 읽었다.

다음은 배변 시 “응가하자 끽끔”책을 읽어 준 건하 어머니의 저널과 면담 내용이다.

화장실에서 응가하고 있는 건하 앞에 가서 일부러 응가 책을 가져가 읽어 주었어요.

(2013.6.8. 건하 어머니의 저널)

일부러 응가 책을 읽어 준 이유는 변비인 것 같아서 주인공처럼 힘주라고 보여줬어요.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2013.6.14. 건하 어머니와의 면담)

배변할 때 힘들어하는 건하를 위해 어머니는 “응가하자 끽끔”책을 보여 주었다. 어머니는 책 속의 동물들과 주인공이 응가 할 때 힘을 주는 것처럼 건하가 힘을 주어 배변할 수 있도록 그림책을 읽어주었다. 건하도 책 속 주인공

처럼 소리도 지르고 힘을 주며 배변활동에 도움을 받았다.

다음은 영아의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할 때 생활동화의 도움을 받은 민호 어머니의 저널 내용이다.

함께 동화를 읽었기 때문에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하는 민호와 그 행동을 시켜야하는 엄마사이에 책이라는 연결고리가 생겼다,

그냥 "양치질해야지"가 아니라 " 민호야! 양양이가 이를 안 닦아서 어떻게 되었지? 우리 민호는 어떻게 해야 할까?"식으로 간접적이면 부드럽게 행동을 유도할 수 있게 되면서 강제적인 지시에서 자발적 행동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2013. 8. 7. 민호 어머니의 저널)

민호 어머니가 저널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어머니들은 생활동화를 활용함으로써 “ ~~해.”, “~~안하면 혼나지.” 등의 지시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아의 자발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부드럽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영아의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2) 생활동화를 통한 교감, 소통 및 공감대 형성하기

어머니와 영아가 생활동화를 읽을 때 주인공의 행동, 상황 등과 동일시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동일시는 다른 인물과 자기를 의식·무의식적으로 동일한 존재로 여김으로써 만족과 안도감을 느끼는 심리현상(뉴에이스 국어사전, 2002)으로 어머니들은 영아의 경험과 연관 지어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아가 책의 내용에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하였다. 영아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 나누기는 어머니와 영아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며 좀 더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게 하였고, 이러한 대화를 통해 어머니와 영아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소통의 장을 넓혀갔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아의 경험을 나누며 소통의 문 열기

어머니와 영아가 생화동화를 읽을 때 어머니는 책을 읽어주고, 영아는 눈으로 그림을 보며 어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 때 어머니들은 책 속 주인공과 영아의 공통된 경험을 끌어내어 영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책보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 사례는 “사랑해 자장자장 사랑해”를 읽고 있는 건하와 어머니의 대화이다.

어머니 : 아가야, 잠 잘 시간이란다. 이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해야지~

(책장을 넘긴다.) 토끼 인형을 데려오렴~곰인형을 데려오렴~

(책장을 넘긴다.) 넌 뭐 데리고 올 거야?

건하 : 토끼

(2013. 7. 31. 참여관찰)

건하 어머니가 잠자기 전에 인형을 데리고 와서 함께 잠을 청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고 건하에게 어떤 인형을 데리고 올지 물어보는 장면이다. 주인공과 동일한 상황을 영아에게 인식시킴으로서 영아는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다음 이야기에 더 집중하며 책읽기를 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다음은 “아기 양아! 이제 잘 시간이야”를 읽고 있는 현민이와 어머니의 대화이다.

어머니 : (책장을 넘기며) 집게집게집게집게~꽃게다!

꽃게야, 꽃게야~이제 잘 시간이야~물 그만 먹고 빨리 자자~

아이 졸려~물만 먹고 갈게~

현민이도 잘 시간에 엄마한테 엄마~뭐주세요, 뭐주세요~

하지? 뭐 달라고 하지?

현민 : 물~

어머니 : 그래~물~ 또?

현민 : 우유!

어머니 : 맞아~현민이도 우유 먹고 싶어~물 먹고 싶어 그러지~

(2013. 6. 17. 참여관찰)

현민이 어머니는 잠들기 전에 꽃게가 물을 먹고 간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평소 잠들기 전 ‘우유’를 먹고 자는 현민이의 모습을 떠올렸다. 이에 어머니는 동화 속 상황과 동일한 현민이의 경험을 질문하며 영아가 책의 내용에 좀 더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음 사례는 “똥이 풍덩”책을 읽고 있는 예서와 어머니의 대화이다.

어머니 : 와~~오줌이랑 똥이 나왔어~

(책장을 넘긴다.) **엄마, 이거 봐요~**

변기 안에 오줌이랑 똥이 있어요~

(책장을 넘긴다.) **송이 엄마는 변기를 들고 화장실에 갔어~**

화장실에 있는 큰 변기 안에다 송이 오줌과 똥을 버렸지~

우리 예서도 뽕뽕이 변기 썼었는데, 그치~?

(손을 흔들며) **잘가 오줌, 잘가 똥 송이가 말했어~**

예서 : 응, 나 어릴 때요?

어머니 : 응~예서 어릴 때~지금은 락라한테 가서 싸는데, 그치~?

(책장을 넘긴다.) 지금 송이를 좀 봐~

기저귀보다 변기를 더 좋아해~

(책장을 넘긴다.) 우와~

예서 : (책장을 넘긴다.) 다 읽었어요~~

어머니 : (맨 뒷장을 보며) 와~송이가 응가한다.

우리 예서도 옛날에 뽕뽕이 변기에 썼었는데 그치? 송이처럼~

그래서 변기에 안녕~했었는데~

(2013. 7. 28. 참여관찰)

예서는 어머니가 읽어 주는 내용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예서도 뽕뽕이 변기를 사용했었다는 어머니의 말에 반갑고 놀랍다는 듯이 “나 어릴 때요?”라고 다시 물었다. 예서의 이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에 어머니는 다시 한 번 주인공과 예서의 경험을 연결 지어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음은 민호와 어머니가 “사랑해 자장자장 사랑해”를 읽으며 나눈 대화이다.

어머니 : 민호도 어제 물놀이 했지요~?

위로 싹싹~아래로 싹싹~문지르고.

이 친구도 혼자서 목욕을 하네~민호도 혼자 목욕하지?

비누거품 (두 손으로 거품내는 흥내내며)이렇게 내서~

민호 : (두 손을 비비며) 이렇게~?

어머니 : 응~(두 손을 비비며) 이렇게 해서 배도 닦고~

민호 : (손으로 머리를 만지며) 머리?

어머니 : 머리로 닦고~ 민호가 다 할 수 있지~?

민호 : 눈도 감어~

어머니 : 어~눈 감고 얼굴도 닦고~

(2013. 8. 7. 참여관찰)

민호의 어머니도 주인공들이 목욕하는 장면에서 민호의 물놀이 후 목욕하기 경험을 연결지었다. 참여 관찰 당일 민호와 어머니는 오전에 수영을 다녀왔던 날이라 민호는 더 쉽게 목욕하기 경험을 떠올릴 수 있었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이므로 뒤에 어머니의 질문이 더 없어도 영아 스스로 이야기를 풀어갔다.

이처럼 어머니들은 동화의 내용과 동일한 영아의 경험을 끌어냄으로서 책읽기를 할 때 영아가 흥미를 갖고, 스스로 이야기하며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소통을 통한 열린 대화하기

어머니들은 영아와 생활동화를 함께 읽은 후로 이전보다 대화의 소재나 주제가 다양해지고, 대화가 많아졌다고 하였다. 영아의 일상생활 모습과 동일한 생활동화 속의 주인공들의 모습, 사건이나 상황 등은 어머니와 영아 모두에게 즐거운 이야기 소재가 되었고, 그 이야기들은 어머니와 영아 간의 소통의 통로가 되었다.

다음은 예서 어머니의 저널 내용이다.

엄마랑 같이 책을 읽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꺼리가 하나 더 생기게 되고, 생각을 공유하는 데도, 상호작용에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2013. 8.11. 예서 어머니 저널)

예서 어머니는 평소 직장생활 때문에 예서와 함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예서와 놀아주는 것을 어려워했었는데, 생활동화를 함께 읽으면서 예서와의 공통된 이야기 거리가 생겨서 생각을 공유하고, 상호작용하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연구자가 참여 관찰을 갔을 때도 초기에 비해 어머니와 예서의 대화가 더 친밀해지고, 어머니가 예서의 눈높이에서 놀아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다음은 민호 어머니의 저널 중 일부이다.

일상 속에서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일들이었지만 함께 읽고 난 책속에서 같은 일이 일어난 경우 민호는 엄마에게 책에서 보았다는 말을 시작으로 책의 내용을 설명하였고 거기에 답하고 맞장구를 치며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이제 막 스스로의 생각들을 말로 표현하기 시작한 민호에게 이는 훌륭한 말하기의 소재가 됨과 동시에 엄마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되었다.

(2013. 8. 7. 민호 어머니의 저널)

이처럼 관심 있는 공통의 소재를 통한 상호작용은 단편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영아 사이의 의미 있는 대화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서로의 일상과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자녀와 그림책을 함께 보면서 생각과 느낌을 교류하면 자녀를 좀 더 잘 알게 되고, 자녀의 개성을 파악할 수 있다(이상금, 1998). 책읽기 과정에서의 대화를 통해 어머니는 영아의 감정이나 관심, 흥미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이는 어머니의 바람직한 양육 방법 및 태도를 갖추어 가는 단서가 될 수 있다.

3) 자녀를 위한 독서 지도의 기초 태도 형성하기

어머니들은 영아와 함께 생활동화를 읽으면서 영아가 좋아하는 책의 유형이

나 특징 등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영아의 흥미와 관심도 고려하여 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은 영아의 책에 대한 흥미를 이해하게 된 건하 어머니의 사례이다.

연구에 참여하여 건하와 함께 책을 읽으면서 건하 또래 아이들에게는 글밥이 많은 책보다는 그림이 재미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지루해하고 집중 못하고, 읽기 싫어하는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요. 책장을 먼저 넘기는 것 같은.

(2013. 7. 5. 건하 어머니와의 면담)

건하는 평소 어머니와 함께 책을 읽는 것을 거부하여 어머니는 이번 연구를 통해 건하가 책을 읽을 때 어떤 행동과 반응을 보이는지, 어떤 책에 흥미를 갖는지 알게 되었다.

다음은 예서 어머니의 사례이다.

“내 쉬통 어딴어”책을 주말 이틀 동안 10회 이상 읽었다. 상당히 긴 분량의 내용인데도 아이가 스토리에 집중하고, 스토리를 기억하며 책의 다음 내용을 미리 알려주거나 엄마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읽을 수 있었다. 이제는 개념을 알려주는 책보다 스토리가 있는 책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

(2013. 7. 7. 예서 어머니의 저널)

예서 어머니의 경우 집에 있는 그림책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았고, 그동안은 집에 있는 책 중에서 예서가 읽어달라는 책 위주로 함께 책읽기를 하였다. 연구 기간 동안 동일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전개 방식과 그림의 특징이

다른 책을 읽으면서 예서의 관심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들은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생활동화를 영아에게 읽어주면서 책을 읽어줄 때 어머니 스스로 미리 읽어보아야겠다고 하였다. 연구자가 참여 관찰 당일 읽을 책을 1~2권씩 가지고 가면 어머니와 영아가 읽고, 그 책을 일주일 동안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어머니들은 상호작용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었다.

다음은 민호 어머니와의 면담 내용이다.

아무래도 카메라가 있으니까 신경 쓰면서 읽어주게 되고, 그렇게 읽어줄 때 민호의 반응이 좋으니까 어! 괜찮네~이런 식으로 읽어주는 게 좋겠구나 하는 것도 생기구요.(.....중략.....) 책의 내용이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지는게 아니라...사실 그냥 읽으면 단 몇 분에 책읽기가 끝나잖아요. 어떻게 읽어주느냐에 따라 10분도 읽고 30분도 읽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기 전에 미리 읽어봐야겠구나 하는 필요성을 느꼈어요. 제가 내용을 알고 있으면 질문거리도 더 생기고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2013. 7. 24. 민호 어머니와의 면담)

민호 어머니는 민호와 책을 읽을 때 민호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보며 적절한 상호작용의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였고, 연구 후반으로 갈수록 민호의 눈높이에서 상호작용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음은 현민 어머니와의 면담 내용이다.

글이 별로 없는 그림책이 더 읽어주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내용을 만들어서 읽어줘야 하니까요. 책을 미리 읽어봐야겠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 책의 경우 읽어주기도, 상호작용하기도 훨씬 수월한 것 같아요.

이쯤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주고 가신 책을 집에서 또 읽을 때는 현민이도 저도 내용을 모두 아니까 상호작용 없이 그냥 쪽 읽을 때도 있고, 그 날의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 또 다른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2013. 6. 3. 현민 어머니와의 면담)

현민 어머니는 글이 많지 않은 책이나 처음 보는 책을 읽을 때, 현민이에게 어떻게 읽어주어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해야 할 지 어려워하였다. 연구가 거듭될수록 어머니 스스로 책을 미리 읽어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현민이와 동일한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달라지는 상호작용의 차이도 경험할 수 있었다.

이처럼 어머니들은 영아와 함께 생활동화를 읽으면서 영아가 흥미로워하는 책과 영아의 흥미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 등을 이해할 수 있었고, 어머니의 구체적인 책읽기 방법을 터득하며 무엇을 읽어주느냐를 넘어 어떻게 읽어주어야 할까에 대해 고민하며 자녀를 위한 독서 지도의 기초 태도를 형성해 나갔다.

2. 생활동화를 읽은 후 영아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난 반응

영아가 생활동화를 읽으면서 보인 반응과 생활동화를 읽은 후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참여관찰과 어머니의 저널과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영아는 생활동화를 읽으면서 영아는 동일시를 통해 즐거움을 느꼈고, 읽은 생활동화를 토대로 일상생활에서 기본생활습관을 실천하고 책의 내용을 놀이로 재 표상하였고, 책 읽는 습관 및 태도가 형성되었다. 영아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동일시를 통해 즐거움 찾기

영아들은 생활동화를 읽는 과정에서 자발적인 동일시 과정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다.

다음 사례는 건하와 어머니가 “응가하자, 끄끔”을 읽고 있는 장면이다.

어머니 : 고구마 똥이야~아우~냄새~~(책장을 넘긴다.)

지금 누가 똥 싸고 있어?

건하 : 건하가 (책장을 넘긴다.)

어머니 : 건하가 똥 싸고 있어~어머~ 똥이 나왔어, 안 나왔어?

건하 : 안 나왔어.

어머니 : 안 나왔지? 그런데 (책장을 넘기며) **괜찮아.**

다시 한 번 해보자~

굉~굉~굉~~응! 나왔어, 안 나왔어?

건하 : (책장을 넘긴다.) 나왔대~

어머니 : 나왔어~야~나왔다~! **잘했어~~**

(2013. 6. 7. 참여관찰)

이 동화에는 동물 주인공들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남자아이가 등장한다. 어머니가 이 남자아이가 누구인지 묻자 건하는 자연스럽게 자신이라고 대답하며 주인공과 동일시를 하고 있다. 응가에 실패한 장면을 지나 동일시한 주인공이 응가에 성공한 장면이 나오자 건하는 정말 자신이 응가에 성공한 것처럼 기뻐하며 어머니의 질문에 대답을 하였다.

다음은 민호와 어머니가 “이 닭기 싫어”를 읽고 있는 장면이다.

어머니 : (책장을 넘기며)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이 잘 닦았나 볼까? 이~우와 반짝반짝

(책을 들어 책 속의 거울을 민호도 볼 수 있게 하며)

민호도 여기다가 이~해보자~ 이~~~

민호 : (거울을 보며 웃는다.)

어머니 : 민호 이도 반짝반짝 하네~! 우와~

민호 : 거울?

어머니 : 어~민호 이도 깨끗해졌어요~

민호 : 거울?

어머니 : 응~거울~이~~~~민호 이 깨끗한 거 같애, 안 깨끗한 거 같애?

방금 우리 치카치카 해서 깨끗한 거 같다~

(2013. 7. 24. 참여관찰)

“이 닦기 싫어”는 이를 잘 안 닦는 토끼가 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이를 잘 닦아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이를 잘 닦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토끼가 이를 바르게 닦은 후에 거울로 이를 보는 장면 다음에 책을 보는 영아들도 자신의 이를 볼 수 있게 거울이 붙여져 있었다. 토끼를 주인공으로 진행되던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영아도 책 속에 등장인물이 되어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거울”이라는 장치가 사용되었는데, 민호도 거울을 보면서 주인공처럼 자신의 얼굴과 이를 비춰보며 동일시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다음 사례는 예서와 어머니가 “쿨쿨 자장놀이” 책을 보면서 나는 상호작용이다.

어머니 : **강아지 바둑이는 손가락을 빨면서**

예서 : 나도 (손가락을 입에 물며) 손가락 빨고

(다른 손으로 머리를 만지며) 머리 잡아서 자는데~

어머니 : (웃으며) 그러니까 말이야~예서는 (손가락으로 그림을 툭툭 치

며)멍멍이랑 똑같이 잔다. 그치~응~

예서 : 응

어머니 : 바둑아~ 너 예서랑 똑같이 자는 구나~

이렇게(바둑이의 손을 바둑이 얼굴그림에 대보며) 머리 잡고 손

가락 빨고~그치~

어머니, 예서 : (큰소리로 함께 웃는다.) 으하하하

예서 : 예서랑~

어머니 : 멍멍이랑 비슷해~

(2013. 6. 2. 참여관찰)

예서는 자신의 잠자는 습관과 똑같은 바둑이가 나온 장면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하였고, 이러한 반응에 어머니가 웃으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니 함께 웃으며 무척 즐거워하였다.

영아들은 이와 같은 동일시를 통해서 더 큰 공감을 느끼고, 공감은 책읽기에 대한 즐거움과 흥미로 이어졌다. 영아들은 책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적 경험으로 어머니와 함께 즐거운 책읽기를 이어나갔다.

2) 기본생활습관 실천하기

영아들은 손 씻기, 옷 입기, 식사하기, 배변하기, 잠자기 등의 일상생활에서 책에서 봤던 내용이나 상황, 주인공 등을 언급하며 바른 생활습관을 실천하였다. 다음은 민호 어머니의 저널 내용이다.

‘손부터 씻고’책을 본 후라서 그런지 손을 깨끗이 닦지 않으면 배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자주하며 꼭 비누를 사용하려고 함.

(2013. 7.19. 민호 어머니의 저널)

민호는 ‘손부터 씻고’ 책을 읽으면서 왜 손을 닦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고, 일상생활 속에서 책에서 본 대로 손에 비누칠을 하고 손을 씻으려고 하였다.

다음은 현민 어머니와의 면담 내용이다.

책 읽고 나서는 혼자 옷도 입어요. 옷 입기~손 나와라 쓱~ 책 속에서 나왔던 어휘를 사용하며 팬티부터 겹옷까지 모두 혼자 입었어요.

(2013. 5. 27. 현민 어머니와의 면담)

현민이는 세 자녀 중 막내라 일상생활에서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스스로 옷 입기와 관련된 “옷을 입자, 째째”을 읽은 후로는 책 속의 어휘를 말로 표현하며 스스로 옷을 입었다.

다음은 건하 어머니의 저널 내용이다.

오늘은 낮잠을 많이 자서 놀이터를 못 나갔어요. 그래서 조금 일찍 저녁 준비를 해서 건하와 둘이 밥을 먹었어요. 항상 먹기 전에 “건하 혼자 잘 먹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책장을 달려가 어제 읽었던 책을 펼쳐 “건하도 혼자 먹네.” 라며 책 속 주인공을 가리켰어요. “그래 책 속 건하처럼 혼자 먹자”라고 이야기를 해줬더니 평소엔 거의 다 떠 먹여주는 데 오늘은 세 번 정도 스스로 먹었어요. 그래서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2013. 5.15. 건하 어머니의 저널)

건하는 어린이집에 가면 스스로 숟가락을 들어 식사를 하지만 집에서는 혼자 먹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였었다. 그런 건하가 “모두 모여 남남남”이란 책을 읽은 후에 동물친구들과 책 속 주인공 영아가 스스로 식사하는 장면을 본 후로는 그 주인공을 떠올리며 스스로 먹기를 시도하였다.

다음은 현민 어머니의 저널 내용이다.

“똥이 풍덩”이라는 책을 읽고 난 뒤에는 항상 대변을 보고, 혼자 닦으려고 하며, 대변을 본 후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고 물을 내린다.

(2013. 5.29. 현민 어머니의 저널)

현민이는 “똥이 풍덩”을 비롯해 배변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배변을 한 후에는 꼭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였고, 스스로 항문을 닦거나 스스로 물을 내렸다. 어머니가 말없이 먼저 변기 물을 내렸을 때 현민이가 울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음은 예서 어머니의 저널 내용이다.

잘 때가 되면 책에서처럼 “목욕->치카치카->이불덮기->불끄기->잠자기”순서를 얘기한다. 목욕은 할머니 댁에서 하고 오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부터 시작하곤 한다. 책에 나오는 두 명의 아이를 자신과 동생이라고 말하고, 수면 시 동생에게까지 적용시키려 한다.

(2013. 7.28. 예서 어머니의 저널)

예서는 어머니가 퇴근하여 집으로 데려가기 전에 할머니 댁에서 목욕을 하였고, 어머니와 집으로 돌아온 후 양치질을 하고 잠잘 준비를 하였다. 이 때에는 “사랑해 자장자장 사랑해”책에서 나온 잠자기 전에 해야 하는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이야기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동생도 실천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영아들은 기본생활습관과 관련된 생활동화를 읽으면서 바르게 손을 씻는 방법, 옷을 입는 순서, 바른 식사 예절, 자기 전에 해야 하는 행동 등 기본생활습관의 구체적인 방법을 습득하였다.

다음은 민호 어머니의 저널 내용이다.

이를 닦지 않으면 양양이처럼 이가 까매지고 손을 닦지 않으면 책속의

여자아이처럼 배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하기 때문에 이도 깨끗이 닦고 손도 잘 닦아야 하는 거라며 행동의 이유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그 행동을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2013. 8. 7. 민호 어머니의 저널)

위의 내용은 생활동화를 읽은 후 민호의 달라진 모습을 관찰한 것이다. 민호는 평소 생활습관이 잘 되었던 아이이고 어머니가 권유를 하면 곧 잘 따라했었는데, 위의 내용처럼 생활동화를 읽은 후로는 그 행동을 왜 해야 하는지 알고, 스스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천력이 높아졌다. 어머니들의 “~~해라.” 등과 같은 구구절절한 설명보다 관련 그림책을 읽는 것이 몇 배나 더 효과적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영아들은 생활동화를 통해 기본생활습관을 가져야 하는 그 타당성을 이해하며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실천하였다.

3) 책의 내용을 놀이로 재 표상하기

생활동화를 읽은 후 영아들이 동화 속 장면이나 상황을 놀이로 재연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씻기, 옷 입기, 배변하기, 식사하기, 잠자기 등의 일상생활 중 특히 잠자기와 관련한 인형놀이가 많이 나타났다.

다음은 예서 어머니의 저널 내용이다.

“사랑해 자장자장 사랑해”를 읽은 후로 집에 있는 뽀로로 인형에게 자기 전 똑같이 “의식”을 해주었다. 엄마가 책 읽어주면 인형에게 똑같이 물어보고 (쉬하고 있는지, 옛날 얘기 해줄게 등), 뽀뽀해줄게 하면 뽀뽀도 해주고...일주일에 3~4일을 그렇게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인형과 나란히 같

이 잔다.

(2013. 8.11. 예서 어머니의 저널)

예서는 “사랑해 자장자장 사랑해” 책을 읽은 후에 동화 속 두 주인공이 잠 자기 전에 목욕하기, 이 닦기, 책보기 등을 했던 내용을 뽀로로 인형에게 동일 하게 적용하여 인형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잠들기 전에 불편한 점은 없는 지 물어보거나, 뽀뽀를 해 주는 등 인형을 아기 다루듯이 돌보았다.

다음은 현민 어머니의 저널 내용이다.

낮에 노는 시간에 곰돌이 인형을 가지고 인형에게 토마스 책도 읽어주고 업어 달라고 해서 업고 유모차를 거실로 가지고 와서 아기라며 태우고 밀고 다녔습니다.

(2013. 6. 7. 현민 어머니의 저널)

현민이도 예서처럼 곰돌이 인형을 아기처럼 다루며 돌보는 놀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은 민호 어머니의 저널 내용이다.

며칠 전에 “셋! 이제 잠잘 시간이에요”를 보며 책 속 아기처럼 인형을 재우는 놀이를 함. 그 후로 잠들기 전에 좋아하는 장난감을 재워주기 시작 함.

(2013. 7.16. 민호 어머니의 저널)

“셋 이제 잘 시간이에요.” 그 책을 본 후로는 자기가 졸리면 버즈를 데리고 와서 이불 펴주고 이야기도 하고 잠도 재워 줘요.

(2013. 7.17. 민호 어머니와의 면담)

민호도 잠자기와 관련된 생활동화를 읽은 후에 인형에게 말도 걸고, 이불도 펴주고, 토닥토닥 재우는 행동을 하며 놀이하였다. 영아들은 인형놀이 외에도 생활동화에서 본 내용을 신체놀이로서 손 씻기나 배변을 하고, 옷을 입기도 하였다.

다음은 현민 어머니의 저널 내용이다.

오늘은 “옷을 입자” 책을 읽으면서 누나들과 다 같이 진짜 옷을 차례대로 입으면서 배꼽, 엉덩이 인사까지 하였다. “꽁꽁 응가 놀이” 책을 읽으면서도 진짜 화장실에서 응가 하는 시늉을 하였다.

(2013. 5. 21. 현민 어머니의 저널)

현민이는 잠자기 전에 어머니와 “옷을 입자 째째” 책을 읽었는데, 그 내용에 따라 두 명의 누나들이 잠옷을 입자 더욱 즐거워하였고, 현민이 자신도 누나들과 함께 책의 내용에 맞춰 옷 입는 놀이를 하였다. “꽁꽁 응가 놀이” 책을 읽을 때는 동화 속 동물 주인공들이 각자의 변기 위에서 응가하는 장면을 보고 직접 따라해 보기도 하였다.

다음은 민호 어머니의 저널 내용이다.

“손부터 씻고” 책을 보며 실제로 손 씻기를 해봄. 놀이처럼 즐거워 함.

(2013. 7.22. 민호 어머니의 저널)

민호는 “손부터 씻고” 책을 볼 때마다 화장실 세면대로 가서 직접 손씻기를 해보았고, 이를 놀이처럼 즐거워하며 반복했다.

이처럼 영아들은 생활동화를 읽은 후 책 속에서 보았던 장면을 인형놀이, 신체놀이 등으로 재 표상하며 즐겁게 놀이하였다. 특히 옷 입기나 배변하기,

손 씻기 등의 구체적인 방법이 반복적인 어휘와 재미있는 그림으로 표현된 생활동화를 읽은 후에 영아들의 놀이가 활발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한 주제를 담고 있는 생활동화라도 영아의 일상생활을 유쾌하고 재미있게 표현한 책이 영아에게 보다 많은 흥미와 재미를 제공하고 놀이로서 재 표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책 읽기 습관 및 태도 형성하기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와 영아가 생활동화를 읽는 경험을 통해 영아들은 일상생활에서 책을 읽는 시간과 독서량이 증가하였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책을 읽게 되었다. 영아 별로 사례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다음은 건하 어머니의 저널 내용이다.

건하가 퇴근하고 온 아빠에게 책 선생님이 책 가져왔다며 “응가하자, 꿈꿈” 책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책을 펼치며 “여기 응아하고 있지?” 라고 아빠에게 동화책 속 그림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2013. 6. 7. 건하 어머니의 저널)

“쏘옥 옷입기 놀이”는 혼자 보면서 좋아했어요. 그림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입기 벗기 라고 중얼거리기도 했어요.

(2013. 6.27. 건하 어머니의 저널)

건하는 연구에 참여하면서 읽었던 책을 스스로 보기도 하였고, 아빠나 동생 등 가족들에게 읽어주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예전에는 책을 보다가 중간에 덮어버렸는데 지금은 엄마랑 책 보면 끝까지 다 봐요. 동생(만 5개월) 재우고 보느라 둘이 책 보는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건하가 책 보자고 엄마한테 이야기 하면 보는 편이에요.

집중해요. 그림에...그림 속의 장면..(예-자장자장 사랑해 경우)캐치를 잘 해서 보는 것 같아요. 집중 시간도 늘었구요.

연구 전에는 집에서 보던 책만 봤었어요. 책꽂이에 있는 책은 거의 전시용이었는데 연구 기간 동안 다양하게 책을 봐서 인지 안 보던 책도 꺼내서 보곤 해요.

(2013. 8. 8. 건하 어머니와의 면담)

건하의 가장 달라진 점은 어머니와 책을 함께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연구 전에는 어머니와 책 읽는 것을 거부하였었는데, 어머니와 생활동화를 읽기 시작한 이후 건하가 먼저 어머니에게 책을 보자고 요청하게 되었다. 이는 건하가 어머니와 함께 생활동화를 읽으면서 즐거움과 친밀감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생활동화 뿐만 아니라 집에 꽂아만 두었던 다양한 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스스로 책꽂이에서 책을 꺼내 읽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독서 시간과 독서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왔다.

다음의 사례는 민호의 경우이다.

혼자 책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짐.

엄마가 읽어 준 것처럼 혼잣말로 묻고 대답하며 읽기도 함.

(2013. 7.16. 민호 어머니의 저널)

에버랜드에 다녀옴. 요즘엔 외출할 때 장난감 자동차대신 책을 챙김. 책에서 본 케이블카, 사파리차 등을 보며 좋아함. 책을 보고 알고 있었던 시설인 동물들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보임(책에서 별다른 흥미를 보이지 않았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013. 7.19. 민호 어머니의 저널)

이제 조작이 필요하거나 제법 긴 책도 혼자 읽고 만지며 놀기 시작함.

(2013. 7.22. 민호 어머니의 저널)

민호는 평소 어머니와 함께 공공도서관이나 서점을 자주 방문하며 어머니와 책을 읽었던 경험이 많은 영아이다. 정기적으로 어머니와 함께 생활동화를 읽기 시작한 후로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읽어주었던 것처럼 혼잣말로 묻고 대답하며 책을 읽거나, 스스로 혼자서 독서 시간을 갖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외출할 때도 장난감 대신 책을 챙겨가서 지하철로 이동할 때 책을 보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책 보기를 놀이로 인식하며 즐기는 것 같다.

민호는 평소 생활을 하다가도 생활동화 속의 내용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뛰어가 스스로 책을 펼쳐 같은 내용임을 확인하고, 책에서 어떻게 했는지 찾아보았다.

생활 동화가 아이의 생활과 연계되어 독서 습관으로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책이랑 일상 생활하는 거랑 같이...노는 것도, 기본생활습관과 관련된 행동들도 책 내용과 연결이 되요. 엄마가 민호에게 “책에서 뭐라고 했지?”라고 했던 것처럼 민호가 엄마에게 책 이야기를 먼저 떠올려 묻거나 이야기해요. 생활동화라는 책을 통해 생활변화를 보려고 했는데 생활 장면에서 나올 때마다 책의 장면을 떠올리며 책을 찾아요. 그만큼 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2013. 8. 7. 민호 어머니와의 면담)

어머니와 생활동화를 읽을 때는 동화 속의 내용과 동일한 민호의 경험을 떠올렸었는데, 반대로 일상생활 속에서도 책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민호의 경험과 책이 상호작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민호는 책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고, 이는 독서습관으로 이어졌다.

예서는 평소 집에 있는 전집류의 책을 꺼내어 책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림만 보고 혼자서 이야기를 꾸며 읽기를 하였었다. 생활동화를 읽으면서 달라진 예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어머니의 저널 내용이다.

평일에 같이 “응가하자, 콩콩”책을 읽으면서 보니 예서가 여러 가지 목소리로 동물 흉내를 내면서 읽었다. 병아리, 하마, 강아지, 고양이 등 자신이 생각하는 동물 목소리로 크게, 작게 구연하는 모습을 보며 예서가 많이 발전했다고 느꼈다.

(2013. 7.28. 예서 어머니의 저널)

예서는 등장 동물에 따라 각 동물의 특징을 살려 구연하며 읽었고 목소리의 크기도 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음은 어머니와 규칙적으로 책을 읽는 변화를 볼 수 있는 사례이다.

예전에는 책을 랜덤으로 일주일에 3~4번 읽었다면 요즘에는 매일매일 책을 읽어달라고 가져와요. 엄마는 나에게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연구 전에는 프뢰벨 명작 책 보면...자기가 만들어서 읽으니까 신기했는데 옛날처럼 지어서 읽지는 않고 제가 읽어줘서 그런지...엄마가 읽어 주는 것처럼, 책에 대한 그림과 글자와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2013. 8. 4. 예서 어머니와의 면담)

예서는 어머니가 책을 읽자고 말하기 전에 스스로 어머니에게 매일 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러한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던 어머니로서는 놀랍게 달라진 예서의 모습이었다. 다음은 연구 후반 예서의 책 읽는 모습과 습관에 대한 내용이다.

“냠냠 식사놀이”그림을 보면서 아이가 스스로 구연을 하면서 읽었다. 빼약이가 사각사각(본인이 생각해 낸 단어임) 사과를 먹는다거나, 돌돌이가 소세지를 떨어뜨린 점 등을 강조하며 읽었다. 맨 앞장(표지)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서 엄마 꺼, 야옹이 꺼 이런 식으로 지정도 해주었는데..이건 엄마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예서가 책읽기에 관심을 보이는 시점에서 이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요즘은 책읽기가 많이 정착이 된 것 같다. 중간에 내가 회사일 때문에 아이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효과가 좀 덜 했던 것 같지만, 요즘은 자기 전에 엄마 무릎에 앉아서 책 2~3권씩은 꼭 보고 잔다.

(2013. 8.11. 예서 어머니의 저널)

이처럼 예서는 어머니와 생활동화를 읽기 시작한 후로는 어머니가 읽어주었던 내용을 기억하여 그림과 연결하여 구연하여 읽었다. 이는 예서가 글과 그림의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등장인물에 알맞게 목소리의 모사, 목소리의 크기 등을 조절하여 구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책 읽는 표현력이 늘었다고 하겠다. 또한 불규칙적이었던 어머니와의 책읽기가 규칙적인 일상생활 습관으로 형성되었다.

현민이는 위에 누나들이 두 명이 있어서 평소 어머니와 단 둘이 책을 읽었던 경험이 적었고, 어머니도 세 자녀의 육아와 살림으로 현민이의

책 읽기에 많은 관심을 두지 못한 상황이었다.

다음은 연구 초기 현민 어머니와 나눈 면담의 내용이다.

첫째나 둘째 때는 24개월 그쯤~ 낮잠 잘 때 책 한 두 권씩 읽어줬었는데 현민이는 거의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처음보다 더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셋이라 그런 건지. 남자아이라서 그런 건지.....남자아이들은 언어적으로 여자아이들보다 발달이 느리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2013. 5.27. 현민 어머니와의 면담)

현민 어머니는 현민이 위의 두 자녀에 비해 책 읽기에 관심이 적은 현민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원인이 어머니 자신의 양육 방법 때문인지, 아니면 영아의 성별이나 발달적 차이 때문인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다음은 연구 중반부터 달라진 현민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손가락 들고 남남”책을 읽을 때는 내가 하는 목소리로 자기가 구연동화하면서 읽었어요. 세 번 정도 함께 읽었더니 현민이가 책장을 넘기면서 제가 읽어주었던 내용을 기억했다가 읽더라구요.

(2013. 7.16/18. 현민 어머니의 저널)

요즘은 저녁에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하면 꼭 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달라고 합니다. 가지고 오신 책을 소중하게 자기 것이라며 꼭꼭 숨겨 놓는 버릇도 생겼어요.

(2013. 6.27. 현민 어머니의 저널)

제가 설거지하는 동안 현민이 혼자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읽어달라며 10권이 넘는 책을 쌓아 놓았어요. 읽어달라는 책이 많아서 목은 아프지만 기분은 좋아요.

(2013. 7.26. 현민 어머니의 저널)

연구 중반부터 현민이는 혼자서 책을 구연하여 읽기 시작하였고, 아침에 일어나 책을 꺼내서 보거나 어린이집에 갈 때 책을 챙기고, 연구 중에 보는 책은 자신의 책이라며 애착을 보이는 등 책을 가까이하고 책읽기를 좋아하게 되었다. 다음은 연구를 마친 후 어머니와 가진 면담의 내용이다.

연구에 참여한 후로 혼자 책을 보는 일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엄마랑 매일 상호작용하며 둘이 책을 읽었어요. 누나들과는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현민이와는 그럴 기회가 없었거든요.

(2013. 8. 8. 현민 어머니와의 면담)

현민이는 일상생활에서도 어머니와 함께 책을 보는 기회가 많아졌고, 연구가 끝난 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혼자서도 읽고, 어머니와도 읽고, 누나들과도 함께 책을 읽으며 현민이는 독서 시간과 독서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상 네 명의 영아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아들은 생활동화를 읽으면서 바른 기본생활습관의 방법을 이해하고 실천하게 되었으며, 동화의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놀이로서 재 표상하였다. 또한 생활동화를 읽으면서 일상생활의 경험을 떠올리기도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책의 내용을 떠올리는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책 읽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생활동화 읽기에서 나타난 어머니와 만 2세 영아 간의 상호작용과 생활동화를 읽으면서 나타난 영아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생활동화 읽기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상호작용

어머니와 만 2세 영아가 생활동화를 읽을 때 나누는 상호작용은 생활동화의 장르적 특징이 반영되어 나타났다. 그 내용을 살펴보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생활습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 어머니들은 기본생활습관의 형성을 돕는 생활동화를 읽으면서 영아의 올바른 기본생활습관을 격려하였고, 영아가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인 방법을 습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영아들과 상호작용하며, 영아가 자조능력을 발휘해볼 수 있도록 영아 스스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도전해볼 수 있도록 약속하며 책임기를 마쳤다. 그리고 어머니는 영아의 기본생활습관 지도 수단으로서 생활동화를 활용하였다. 어머니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영아들이 생활동화를 읽으면서 바른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교육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와 같은 상호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영아는 생활동화에 나오는 옷 입기, 배변하기, 식사하기 등의 다양한 상황에 관심을 보이고 이를 영아 자신과 관련지으며 영아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조기술 및 좋아하는 것, 알고 있는 것 등의 긍정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는 생활동화를 읽을 때 자신의 경험을 연상하고 이야기를 자신의 삶과 연결하게 되는 개인적 반응이 많이 나타난다는 강은진(1996)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영아들은 생활동화 속에서 자신의 삶과 닮은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생활동화는 영아의 삶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장르적 특징이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만 2세 영아기에는 신체적 외모, 정서, 능력, 흥미 등을 포함한 자신에 대한 평가인 자아개념이 발달(장영희, 2000)하는데, 위와 같이 영아들이 자신의 능력과 흥미 등을 긍정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아 자아개념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영아는 이처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인정받으면서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이는 자아 존중감의 기초가 된다.

일상생활에서 영아가 편식을 하거나, 이를 닦지 않으려고 할 때, 스스로 옷 입는 것을 실패하였을 때, 배변을 힘들어 할 때 등의 상황에서 어머니들은 책의 주인공이나 상황을 언급하여 영아가 스스로 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영아의 일과와 그림책을 자연스럽게 연계하는 것이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강민정(2013)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며, 어머니들이 영아들에게 쉽게 동기를 유발시키고 영아들의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유용한(이경우, 장영희, 이차숙, 노영희, 이현자, 1997) 생활동화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생활동화를 읽으면서 생활동화를 통한 교감, 소통 및 공감대를 형성하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 생활동화를 읽을 때 영아의 동일시가 많이 나타났는데, 어머니는 영아의 경험을 연관 지어 상호작용하면서 영아가 책의 내용에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하였다. 감정이입하거나 동일시하기 쉬운(김세희, 2000) 생활동화의 특징이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영아가 동일시를 통해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때 어머니는 영아의 생활세계, 영아가

겪는 중요한 사건, 영아의 사회·정서적 발달과 관련하여 상호작용함으로서 책읽기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는 최예린(2010)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영아로 하여금 책을 읽는 과정에서 공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책읽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왔다. 더 나아가 책 읽기 상황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도 영아의 생활과 비슷한 생활동화의 내용은 어머니와 영아 모두에게 즐거운 이야기 소재가 되었고, 영아를 보다 잘 파악하고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대화는 어머니와 영아 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하였고, 서로의 일상과 생각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와 영아 사이의 친밀감을 높이고 정서적 유대를 돈독하게 한 그림책 읽기 과정(이상금, 1998)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어머니들은 영아와 함께 생활동화를 읽으면서 영아의 책에 대한 흥미를 길러주었고, 읽는 것 자체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어머니들은 영아에게 규칙적으로 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통해 영아가 좋아하는 책의 유형, 특징 등을 이해할 수 있었고, 교육적 목적뿐만 아니라 영아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부모와 유아가 그림책을 함께 읽으면서 자녀가 어떤 종류의 책에 관심을 더 갖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다는 어머니의 인식 변화를 보고한 김숙영과 이진영(2010)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하며, 자녀의 책에 대한 흥미를 길러주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영아가 함께 책을 읽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해 준다. 또한 어머니들은 영아에게 책을 읽어주기 전에 미리 읽어보기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책의 내용을 알고 있을 때와 모르고 있을 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질문이나 설명 등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상호작용의 차이를 느꼈기 때문이다.

2) 생활동화를 읽으면서 나타난 영아의 반응

생활동화를 읽으면서 영아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들은 생활동화를 읽는 과정에서 자발적인 동일시 과정을 통해 주인공과 동일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즐거움을 표현하였다. 주인공과의 동일시는 감정이입을 하는 일이고, 캐릭터와 자신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것(Nodelman, 1996/2001)이다. 이송은과 박찬옥(2007)은 2세 영아의 책에 대한 의미 탐색 연구에서 그림책의 소재가 영아의 생활경험과 연계가 약한 경우에는 책읽기 자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활동화는 영아가 동화 속의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감정이입하기가 쉽기 때문에 영아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영아는 책을 읽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였고, 어머니와의 책읽기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면서 책 읽기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을 더 느끼게 되었다.

둘째, 영아는 생활동화를 보고 익힌 자조기술 및 바른 생활 습관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였다. 손 씻기, 옷 입기, 식사하기, 배변하기, 잠자기 등의 일상생활을 할 때 생활동화 속에서 봤던 내용이나 상황, 주인공 등을 언급하며 바른 생활습관을 실천하였다. 특히 어머니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해야 하는 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영아들은 스스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생활동화를 읽기 전보다 실천력이 높아졌다. 이는 김경애(2010), 이세림(2012) 등의 연구에서 그림책이나 생활동화를 활용한 통합교육활동이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의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며, 영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 및 실천에 생활동화 자체만으로도 교육적인 매체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영아는 생활동화 속의 상황을 놀이로 재 표상하였다. 잠자기와 관련한 인형놀이, 손 씻기, 배변하기, 옷 입기를 주제로 신체표현하기 등의 놀이 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잠자기와 관련한 인형놀이가 많이 나타났는데 영아들은 잠자기와 관련된 생활동화를 읽은 후 동화 속 주인공들이 잠자기 전에 씻고, 책을 보고, 이불을 덮고 잠을 청하는 모습을 인형에 투사하여 영아 자신이 성인의 역할을 하고, 인형을 아기처럼 돌보아 주었다. 놀이의 여러 유형 중 인형놀이가 많이 나타난 것은 마루 닦기, 인형돌보기, 빨래하기 등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내용의 단순한 역할놀이를 좋아하는(이숙재, 1997) 만 2세 영아의 놀이 특성으로 보인다. 피아제(1962)는 놀이를 통해 영아가 새로 학습한 지식과 기술을 연습하고 견고화한다고 하였는데, 영아들은 생활동화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기본생활습관과 관련된 행동들을 일상생활 중에 모방과 놀이를 하면서 익히고 배우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징적 기능이 발달하여 가상놀이와 상징놀이가 출현하는 만 2세 영아의 발달적 특징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만 2세 영아들은 책을 외형적 사물로서 인식하고 놀잇감으로서 책을 이용한 놀이(이송은, 2006)를 하거나, 정보그림책의 물리적 속성을 활용하여 신체표현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거나 가작화 활동(김선희, 전연우, 조희숙, 2011)을 통한 놀이를 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영아들의 놀이는 신체표현, 인형놀이 등의 가작화된 놀이가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놀이는 주로 책의 내용을 재표상한 것이 많았으며, 그림책 자체를 놀잇감으로 인식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모방을 통한 가작놀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동화가 영아의 생활에서 모방의 대상이 되거나 흥미로운 놀이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영아는 어머니와 생활동화 읽기 활동을 진행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책

을 읽는 시간, 독서량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영아의 변화는 어머니와 영아의 규칙적인 책읽기 경험이 영아의 읽기동기 형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강남희(2012)의 연구에 따르면 유치원에서 교사가 유아들에게 매일 그림책 읽어주기 활동이 유아의 읽기 동기 중 내적 동기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매일 그림책 읽어주기 활동의 경험과 책 읽기의 모델이 되는 교사의 모습에서 읽기에 대한 중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영아들은 어머니가 권유하기 전에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책을 보거나 어머니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하였고, 어머니가 책을 읽어주었던 모습을 모델링으로 구현하여 읽기, 가족들과 함께 읽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책을 읽었다. 같은 맥락에서 영아는 어머니와 규칙적으로 생활동화를 읽으면서 책읽기의 즐거움이나 중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책을 읽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아들은 생활동화를 읽으면서 자신의 경험을 쉽게 떠올렸는데, 이는 다른 장르보다 동일시가 쉬운 생활동화의 장르적 특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대의 상황, 즉 일상생활 속에서도 영아들은 책의 내용을 쉽게 떠올렸다. 자조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의 생활동화를 계속 읽다보니 이와 동일한 영아의 경험에서 생활동화의 사건이나 주인공들이 한 행동 등이 자연스럽게 이미지화 되어 영아의 언어적 반응으로 표현되고, 읽었던 책을 찾아보기도 하였다. 즉, 생활동화와 영아 사이에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영아로 하여금 책을 더욱 가깝게 여기고, 읽기 행동을 지속하게 하는 힘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및 제언

이상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어머니는 영아의 올바른 기본생활습관 지도를 할 때 생활동화 속의 주인공, 상황 등을 언급하며 교육적인 수단으로서 생활동화를 활용하였다. 영아는 생활동화를 읽으면서 자신을 동일시하고, 동화 속의 상황을 놀이로 재표상하기도 하고, 올바른 기본생활습관을 실천하였다. 어머니와 영아는 생활동화를 통해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받으므로 생활동화는 영아의 생활경험을 반영하고, 주제와 목적에 따라 내용이 교육적으로 충실해야 한다.

둘째, 영아가 즐거운 책읽기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영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적절한 책을 선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머니는 영아의 발달 수준과 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파악하여 이에 적절한 주제 및 내용의 그림책을 선정하도록 한다.

셋째, 영아들의 책 읽기 습관 및 태도를 형성하는 데는 많은 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즐거운 책읽기 경험이 필요하다. 영아가 그림책을 읽을 때 영아 혼자 읽기보다는 어머니와 영아가 함께 상호작용하며 읽도록 한다. 영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책을 읽고 상호작용하면서 신뢰감을 쌓고,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며 이러한 정서적인 경험이 책 읽는 즐거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머니는 영아와 책 읽기 상호작용 시 책의 내용 뿐만 아니라 책의 내용과 관련된 영아의 경험이나 감정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영아의 반응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좋겠다. 더 나아가 이러한 책읽기 경험이 일회성 또는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상화되는 것이 영아의 책 읽기 습관 및 태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의 논의 및 결론을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만 2세 영아 4명과 그들의 어머니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영아의 자조기술과 관련된 기본생활습관을 다룬 생활동화만을 선정하여 어머니와 만 2세 영아 간의 상호작용과 변화를 살펴보았다. 생활동화는 장르적 특성이 분명하고, 주제가 다양하며, 영아의 연령 및 발달에 따라 적합한 내용들이 다르다. 그러므로 연구의 대상과 생활동화의 종류를 다양하게 접근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생활동화 읽기에서 나타난 어머니와 만 2세 영아 간의 상호작용과 생활동화를 읽으면서 나타난 영아의 반응을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영아의 반응은 어머니의 저널과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생활동화를 읽으면서 나타난 영아의 반응을 양적인 방법으로 측정해볼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 연구의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좀 더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생활동화를 읽으면서 나타난 영아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이나 독서 태도 등을 질적으로 탐색해본다면 영아의 의미 있는 변화 양상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남희(2010). 유치원에서 매일 그림책 읽어주기 활동의 유아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강문희, 이혜상(1997). **아동문학교육**. 학지사.
- 강민정(2013). 만 1세 영아의 그림책 보기 활동을 위한 부모지원 실행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강은진(1996). 환상동화와 사실동화에 대한 유아의 반응 비교연구-소집단 그림책 읽기활동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강화자(2008). 2세 영아의 그림책에 대한 반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고명수(2005). 동화를 통한 토의활동이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고문숙, 임영심(1999). **유아를 위한 문학 교육**. 정민사.
- 고우리(2013).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의 영아와 어머니 상호작용전략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고진숙(2004). 그림책 읽기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언어유형과 영아의 반응.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곽승주(2003). 영아-교사 간 상호작용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 2세 영아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애(2010). 그림 동화책 읽어주기 활동을 통한 통합적 활동이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에 미치는 효과. 탐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숙(2008). 그림책 읽어주기 활동을 통한 독서지도 효과 연구. 진주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진(2002). 개념책, 글자책, 숫자책 읽기 상황에서 어머니-유아의 언어적 상호작용.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금주(2000).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 유형과 영아의 언어 발달에 관한 연구 : 놀이·일상·책 읽어주기 상황을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명숙(2008). 영아 그림책 읽기에서 나타난 어머니, 영아의 의사소통 전략 ; 까꿍놀이 그림책과 명명하기 그림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민정(2007). 그림책을 통한 기본생활습관이 만 4세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민화(2005). 그림책 읽기에서 나타난 그림책, 영아, 어머니의 삼자간 의사소통. *어린이 문학교육 연구*, 6(2), 19-51.
- 김선희, 전연우, 조희숙(2011). 정보그림책에 대한 만 2세 영아의 반응. *어린이 문학교육 연구*, 12(2), 121-146.
- 김송이(2011). 기본생활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3), 101-124.
- 김숙영, 이진영(2010). 유치원에서 실천해 본 책읽기 활동과 부모의 책읽기 관련 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 *우리말교육현장연구*, 4(1), 95-119.
- 김세희(2000). *유아교사와 부모를 위한 유아문학교육*. 서울 : 양서원.
- 김양선(1997). 소그룹 그림책 읽기에서 그림책에 대한 5세 유아의 반응.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천(2001). 현장작업에 필요한 열한 가지 연구기술. *교육인류학연구*, 4(1), 1-43.
- 김영철(1999). 질적 연구에 있어서의 글쓰기. *교육인류학연구*, 2(2), 71-96.

- 김재순(2003). 만 2, 4세 유아와 어머니의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_____, 김희진(2003). 만2, 4세 유아와 어머니의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3), 57-71.
- 김지윤(2002). 영아를 위한 어머니의 그림책 인식 및 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정(2009). 부모의 훈육태도가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희, 박상희(1999). *유아문학교육*. 학지사.
- _____, _____(2008). *유아문학 이론과 적용*. 학지사.
- 뉴에이스 국어사전(2002). (주)금성출판사.
- 마미애(2010). 만 2세 영아반 그림책 보기 활동에 관한 실험연구. 안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마쓰이 다다시(1990). *어린이와 그림책*. 샘터.
- _____ (1996). *어린이 그림책의 세계*. 한림출판사.
- 문지영(2006). 수학 정보그림책과 이야기 그림책 읽기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와 유아의 언어적 상호작용 전략.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연, 도연심(2001). *아동발달*. 동문사.
- 박지노(2013). 영아 상호작용 관련 논문의 연구 동향 분석 : 2000~2012년 논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진희(2010). 이야기 그림책과 정보 그림책 장르의 텍스트 구조와 특징에 대한 유아의 이해.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변윤희(2005). 어머니의 영아와 함께 그림책 읽기 전·후의 그림책 평가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본 그림책, 영아, 어머니의 상호작용. *어린이*

문학교육 연구, 6(2), 53-73.

서미경(2004). 만 2세아 기본생활습관 실태에 대한 연구 : 부모와 교사의 반응 비교.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정숙, 남규(2010). 개정 유아문학교육. 창지사.

신현숙(2000). 그림 이야기 장르에 따른 만 3세와 5세 유아의 그림책에 대한 반응 비교.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신현주(2006). 가정과 연계한 기본생활습관교육이 유아의 자아개념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신혜선(2011). 유아그림책의 기호학적 이해. 한국학술정보(주).

양옥승, 조유나, 나은숙, 김호인, 손복영(2011). 영아의 발달과 보육. 도서출판 신정.

오진희(2000). 그림책 읽기에서 나타난 교사의 언어적 유형에 따른 영아의 반응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육길나(2008).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에서의 어머니 행동특성과 영아의 행동특성과 애착 안정성과의 관계. 배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경우, 장영희, 이차숙, 노영희, 이현자(1997). 유아에게 적절한 그림책. 서울 : 양서원.

이명조(2005). 영유아발달과 교육. 양서원.

이미영(2007). 대집단에서의 동화읽기가 유아의 기본생활습관과 도덕적 판단력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민경(2003). 영아-어머니 애착 안정성과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열린유아교육연구, 8(1), 61-73.

이상금(1998). 그림책을 보고 크는 아이들. 사계절.

_____, 장영희(2001). 유아문학론. 교문사.

- 이세림(2011). 생활동화를 활용한 통합교육활동이 만 3세반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및 주도성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송은(2006). 2세 영아의 책에 대한 의미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_____, 이선영(2005). 유아 문학 교육의 이론과 실제. 창지사.
- _____, 박찬옥(2007). 2세 영아의 책에 대한 의미 탐색. 유아교육연구, 27(2), 181-209.
- 이숙재, 이봉선(1999). 영유아의 발달과 교육. 창지사.
- 이영경(2000). 영아가정의 그림책 이용 실태와 그림책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조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자, 이종숙(1996). 영아의 문해 행동 발달과 영아 부모의 상호작용 유형의 변화. 유아교육연구, 16(1), 23-48.
- 이용숙,김영천(1998).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교육과학사.
- 이용숙 · 김영천 · 이혁규 · 김영미 · 조덕주 · 조재식 공저(2005). 교육현장 개선과 함께 하는 실행연구방법. 학지사.
- 이은수(2010). 유아의 마음이론과 그림책 장르에 따른 정신상태용어사용과 상호전략의 차이.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연, 이근영, 장유경(2004). 어머니의 책읽기 상호작용 유형이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1), 131-146.
- 이지은(2008). 가정에서의 어머니-유아 간 책 읽기 상호작용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춘복(2007).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에 의한 만 4세 유아의 그림책 읽기 행동의 변화과정 탐색.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춘희(2005). 유아문학교육. 동문사.
- 임원신(1994). 그림상징책이 유아의 읽기흥미와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혜련(2006). 그림책읽기 상황에서 영아와 교사 간 상호작용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남련, 강은숙, 나현행, 성은숙, 이은임, 김기선, 이효수, 엄영숙, 엄은옥, 김연옥, 김호년(2012). 영아발달. 양서원.
- 장현주(2000). 동화구연활동이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 9(2), 83-93.
- 정명숙(2012). 어머니의 그림책 읽어주기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유아의 언어능력의 차이.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선명(2012). 만 2세 영아가 그림책과 친숙해지는 과정,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인선(2008). 자기보호 프로그램 활동에 따른 만 2세 영아의 자조능력 발달효과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지현(2009). 그림책의 종류에 따른 교사와 영아의 의사소통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채유진(1999). 가정에서의 어머니-영아 간 책 읽기 상호작용.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예린(2010). 1세 영아의 그림책 읽기 경험의 이해.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은주(2002). 책 읽기 활동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와 1세 영아의 상호작용 : 월령과 책의 종류에 따른 비교.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혜경(2008). 영아의 책 읽기 방식 탐구. 중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지연(2009). 그림책 읽기 방식에 따른 영아의 반응에 관한 질적 연구.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현은자,김세희(2005). 그림책의 이해2. 사계절.
- 홍선희(2000). 그림책 장르에 따른 유아의 언어적 반응과 행동적 반응의 연령별 비교. 인천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Cooling, W.(2003). 아기성장과 북스타트 효과. 북스타트 서울 국제 심포지엄 강연.
- Cullinan, B., & Galda, L.(1994). *Literature and the children*. Fort Worth, TX: Harcourt Brace College.
- _____ (2002). *Literature and the child*. CA: Wadsworth.
- Huck, C. S., Helper, S. L. Hickman, J., & Keifer, B. Z.(1997). *Children's literature in the elementary school(6th ed)*. Madison, WI: Brown & Benchmark.
- Jalongo, M. R.(1998). *Young children and picture book: Literature from Infant to six*. Washinton D. C: NAEYC.
- Lincoln, S., & Guba, G.(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erry Park, CA: Sage.
- Lukens, R. J.(1995). *A critical handbook of children's literature(5th ed.)*. N. Y. : Harper Collins Collage Publishers.
- Morrow. L. M.(1989). *The effect of small group story reading on children's questions and comments. In Cognitive and Social Perspectives of the Reserch and Instruction* by S. McCormick and J. Zutell(ed.).

Thirty-seventh Yearbook of the National Reading Conference,
Chicago, IL:

Nikolajeva, M., & Scott, C.(2001). *How picture books work*. New York:
Routledge.

Piaget, J.(1962). *Play, dreams and imitation in childhood*. New York:
Norton.

Schickedanz, J. A.(1986). *More than the ABCs: The early stages of
reading and writing*. Washington, D. C: NAEYC.

Senechal, M., Cornell, E. H., & Broda, L. S.(1995). *Age-related differences
in the organization of parent-infant interactions during picture-book
reading.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0(3), 317-337.*

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n the Reading of Realistic Picture Books between Mothers and Their Two-Year-Old Infants

Jeon, Kyung-ae

Majo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interactions between mothers and their infants in the reading of realistic picture books and examine infants' reactions while reading realistic picture books. For those purposes, the study set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First, what are the interactions of mothers in the reading of realistic picture books?

Second, what are the reactions of infants while reading realistic picture books?

The subjects include four infants and their mothers in Seoul. The research

period lasted from May 9 to August 11, 2013, during which the investigator visited each of those families 12 times and made participant observation of the reading process of realistic picture books between mothers and their infants in 12 sessions over 14 week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participant observation, in-depth interview, and mother's journal.

The study examined interactions between mothers and their two-year-old infants in the reading of realistic picture books through participant observation, during which the reading process of life fairy tales between mothers and their infants was videotaped and later transcribed. Data on the reactions of infants were gathered through mothers' journals and interviews with the investigator since mothers were in the position of observing the daily lives of infants at the closest distance and figuring out their acts and attitudes carefully.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repeated reading and were coded into meaningful categories.

The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examined mothers' interactions in the reading of realistic picture books and found that they encouraged desirable basic life habits for infants by sharing basic life habits-based stories, made promises for improved life habits by helping them acquire the concrete methods of basic life habits, and interacted with their infants by making use of realistic picture books as a means of teaching basic life habits in daily life. In addition, they had mutual responses, communication and consensus with their infant children through open conversations to share their experiences with them after reading realistic picture books and underwent interactions to help their infants feel the joy of reading through the experience of reading together.

Secondly, infants found happiness through identification and showed interest in reading while reading realistic picture books. After reading realistic picture books, they practiced the basic life habits in daily life, mimicked the characters of books, and re-represented the situations of stories through play, forming a habit and attitude of reading.

Based on those findings, the study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mothers and infants benefit from realistic picture books when teaching and forming the basic life habits, respectively, which means that realistic picture books should reflect the life experiences of infants and contain content that is loyal to the educational objectives according to topics and goals.

Secondly, infants need books appropriate for their developmental level and interest to have happy reading experiences, for which mothers should understand their developmental level and concern and interest in books and select picture books of proper topics and content accordingly.

Finally, it is desirable that mothers and their infant children read picture books while interacting with each other instead of infants reading them by themselves. Such reading experiences should naturally become a part of daily life so that they can help infants with forming a reading habit and attitude.